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에코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작품 세계

-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와

『원령공주[もののけ姫]』를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변 영 백

에코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작품 세계
-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와
『원령공주[もののけ姫]』를 중심으로 -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변 영 백

인 준 서

변영백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작품을 분석하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와 에코페미니즘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으로 그의 작품은 일본 내에서 뿐 아니라 한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2001년 개봉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壽の神隠し]』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금곰상을 수상했으며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200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작품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은 대부분이 여성, 그 중에서도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다.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들도 역시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주어진 역할에 관계없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성 주인공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옹호하는 역할로 그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신의 작품 속 주인공을 대부분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하는 작품을 다수 창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특징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여성’과 ‘자연’의 두 가지 요소가 작가의 작품과 에코페미니즘 간의 연관성을 찾게 하는 근간이 되며, 그로 인해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을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

』와 『원령공주[もののけ姫]』로 한정된 것은 두 작품 모두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두 작품 모두 내용 전개상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주인공 및 주인공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물들까지 모두 여성이다. 이 때문에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이 두 작품을 분석하여 작품에서 여성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를 결합한 것인데 가부장제를 여성 억압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페미니즘 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여성만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역시 억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억압받는 대상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여성과 자연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부장제가 위계적이며 이분법적인 사고를 근거로 남성과 여성을 개념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과 자연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 하에서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는 자급적 관점의 여성중심적 소규모 공동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생활방식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반면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온 지역 공동체의 생활방식은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간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의식은 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간의 변화는 다시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에코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과 자연이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착취와 파괴의 관계에서 벗어나 공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분석하는 세 가지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즉 에코페미니즘이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주체-주체의 상호성 실현을 지향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작품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에코페미니즘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연구자는 공동체 의식이 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공간의 형성과 변화가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에서 가부장제의 지배 논리와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가를 보여주었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 토르메키아와 크샤나는 가부장제의 지배 논리를 통해 상대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고통을 주었고 상대의 저항을 야기하였다. 또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크샤나와 『원령공주』의 예보시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통해 도구적 이성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의 산과 아시카타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연을 타자화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연과 서로 대등한 주체로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생명존중·상호존중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상생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이 공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성을 분석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 바람 계곡을 자급적 관점의 자연친화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로 표현하였

고, 『원령공주』에서 타타라 마을을 여성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로 표현하였다. 즉, 바람 계곡은 자연에 감사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로 자연의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반면에 타타라 마을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노동에 참여하고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체로 가부장제의 성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을 형성하였지만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한 결과 삶의 터전인 타타라 마을이 파괴되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공간의 형성 간에 상호적 연관성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본 연구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바가 이상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면서 주체-주체의 상호성을 인지하고 유지한다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공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다시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통해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 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져 있는 가부장적인 관점을 에코페미니즘 시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작품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중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 두 작품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작품에 대한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방법	1
2. 선행연구 검토.....	5
II.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고찰	12
1. 페미니즘 이론의 전개 과정	12
2. 에코페미니즘	23
III. 에코페미니즘과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33
1. 작품의 서사 단락 구성	33
1)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서사 단락 구성	33
2) 『원령공주』의 서사 단락 구성	39
2. 에코페미니즘을 통한 작품 분석	47
1)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	48
2)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주체-주체의 상호성 실현	62
3) 공동체 의식이 공간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성	85
IV. 결론	102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자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작품을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재해석하는 작업을 접한 적이 있다.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고 동일한 작품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페미니즘 관점에 입각하여 동일한 내용을 재해석하는 것은 문학작품뿐만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결국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관점의 작품 분석은 현실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페미니즘(feminism)은 신념이고 학문이며 동시에 운동이다.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적(性的) 차이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억압을 해체하고 양성(性)의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적 차이[difference]는 말 그대로 ‘성[sex]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차이로 인한 억압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discrimination]을 당한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부당하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페미니즘이 목표로 하는 바에 다가설 수 있다. 즉 페미니즘 관점에 입각한 사고는 ‘다르다’는 것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차별을 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문제와 매순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페미니즘이 목표로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적 차이로 인한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

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성적 차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부당하다고 인식한 데에서 페미니즘이 시작되었다. 인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부터 페미니즘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성차별적인 억압으로부터 여성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운동을 통해 지금의 페미니즘으로 발전한 것이다.

1792년 메리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의 『여성 인권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가 출간된 이래로 여성의 삶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투표를 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이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 전반에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관점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관점은 교육과 문화 등을 통해 반복되고 강화된다.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의 현상을 여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비틀어보는 시도를 하는 까닭은 남성중심적인 관점을 당연시하는 현실에 변화를 가져 오고자 하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유명한 감독이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スタジオジブリ)에

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의 작품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데 1980년대부터 TV를 통해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 『알프스 소녀 하이디[アルプスの少女ハイジ]』, 『프란다스의 개[フランダー스의犬]』, 『미래소년 코난[未來少年コナン]』, 『빨강머리 앤[赤毛のアン]』 등은 모두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화, 장면설정, 화면구성을 담당했던 작품들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1983년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1984년 극장용 애니메이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를 완성하였고, 1985년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하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를 주로 제작하게 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영화의 특징은 주로 소녀와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며 작품을 통해 인물들의 내적 성장이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그린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작품마다 비행기를 통한 비행이나 마법을 통한 비행이 등장하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보고 꿈을 키워온 그의 성장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인하, 2003, 2006).

애니메이션(animation)은 다양한 매체 가운데에서도 상상력이 극대화된 장르이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현실에서 표현 불가능한 것을 구현해낼 수 있다. 다양한 기법과 효과를 이용해 인간이 상상하고 그리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매력이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애니메이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처음 접하는 시기가 영유아기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장르적 특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pp. 27-28).¹⁾

1) 또한 강영숙 (연출), EBS (제작) (2014). 「인간과 애니메이션 1부 애니메이션, 세상

본 연구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의 작품상의 특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작품 제목에 소년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에서도 소녀가 등장하며 작품 전개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주인공인 소녀·소년과 대립하는 인물들 또한 여성이 많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녀는 물론이고, 그 외의 여성 등장인물들도 그들이 직면한 사건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성 주인공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옹호하는 역할로서 그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와 『원령공주[もののけ姫]』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그려 연재 중이었던 만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가 원작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담아 제작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성공은 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의 발판이 되었다. 『원령공주』는 스튜디오 지브리 설립 이후에 제작한 작품으로 1997년에 개봉했으며, 이 역시 1993년 미야자키 하야오가 출간한 그림책 『원령공주』를 원안으로 하고 있다(박인하, 2006). 1984년에 개봉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1997년에 개봉한 『원령공주』는 약 13년의 시간차를 두고 제작된 작품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주인공인 소녀 나우시카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자연을 지키고자 한다. 나우시카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재건하기

을 사로잡다. 『다큐프라임』 [다큐멘터리]. 서울: EBS TV. 참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자 하는 여성인물인 크샤나와 대립한다. 『원령공주』의 주인공인 소녀 산은 숲을 지키는 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숲을 파괴하는 인간들로부터 숲을 지키고자 한다. 산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숲을 파괴하고자 하는 여성인물 에보시와 대립한다. 궁극적으로 두 작품 모두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으로서의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인공 소녀들은 이러한 신념을 실천하는 인물들이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의 작품 세계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의식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왔음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본 연구는 이 두 작품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으로 고찰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의식은 물론 에코페미니즘이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고찰하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가진 에코페미니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제의식과 작품세계를 고찰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제의식을 고찰한 연구로는 김강희(2008), 김도연(2014), 박혜란(2010)의 연구가 있고,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세계를 고찰한 연구로는 김소라(2012), 신문희(2007), 이수진(2009)의 연구가 있다. 김남석(2007), 김종태(2010), 박경

선(2000)은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주제의식인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주목하여 생태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고찰하거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연관을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엄윤희(2008), 전해정(2008), 진은경(2006)은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연구하였다.

김강희(2008)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원령공주』를 일본의 고료[御靈]신앙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고료[御靈]신앙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영(靈)에 대한 신앙으로,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정령신앙과 원한을 품고 죽은 이의 영혼이 사람에게 씌어 병에 걸리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원령신앙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김강희는 일본 고료[御靈]신앙의 종교문화적·사회문화적 성립배경을 고찰한 후 『원령공주』의 서사와 고료[御靈]신앙과의 연계성을 분석해 이 작품이 고료[御靈]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도연(2014)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관통하는 ‘비행’의 모티브에 주목하여 비행과 비행기를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비행의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도연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비행의 모티브를 통해 자신만의 판타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늘을 나는 비행 행위는 비일상(非日常)에의 진입,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이동, 통과의례의 수단, 유토피아의 사수를 위한 여정의 시작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일본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다. 박혜란(2010)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가 자신의 주제의식을 갖고 따뜻한 휴머니즘의 바탕 아래 아름답고 섬세한 배경묘사와 치밀한 스토리 구성으로 사회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서 숲, 소녀, 마을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소재인 동시에 일본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분석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숲, 소녀, 마을을 통해 일본의 문화나 일본인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품을 통해 윤리적·도덕적 메시지와 현대 일본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김소라(2012)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연구하였다. 김소라는 『천공의 성 라퓨타[天空の城ラピュタ]』, 『원령공주[もののけ姫]』,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壽の神隠し]』, 『하울의 움직이는 성[ハウルの動く城]』의 여성 주인공들과 그녀들과 대립하는 여성 인물들이 지닌 특성을 분석하였다. 『천공의 성 라퓨타』의 시타와 『원령공주』의 산을 통해서도 신성하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치유와 구조를 실현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센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소피를 통해서도 자아 성장을 실현하고 능동적으로 자립해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각 작품에서 주인공들과 대립하는 여성 인물들은 젠더를 초월한 강인한 모습을 지닌 여성들로서 선과 악의 양면성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주인공과 얽힌 사건을 통해 정화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신문희(2007)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나타나는 소녀의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소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신문희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소녀들에게 철학적·종교적·이데올로기적 사명을 부여하면서 여성성과 모성을 바탕으로 한 공감의 능력과 남성적인 강인함을 지닌 이상적인 소녀의 캐릭터를 미야자키 하야오만의 독특한 여성상으로 재창출하였다고 보았다. 이수진(2009)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서 인물의 역할과 그 외 서사적인 요소가 인물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여 여성 인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치유와 구조, 에코페미니즘, 운명적 낙관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남석(2007)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드러나는 생태의식에 대

해 연구하였다. 김남석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숲, 생물, 도시, 욕망을 분석하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도구적 자연과의 배척, 광역적 정체감의 구축, 문명의 위험성 경고, 인간의 우월성 부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무와 숲을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세상의 모습을 제시하며 자연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러한 생태계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종태(2010)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와 타카하타 이사오[高畑勲]의 작품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종태는 그들의 작품에서 자연과 인간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스튜디오 지브리가 지향하는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작품이 평화로운 자연과 추억의 순수성, 본원적인 자연과 재생의 비극성, 인공적인 자연과 낙원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박경선(2000)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성장배경과 작품적 특성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연관에 바탕이 되는 사상적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조엽수림 문화론에 대한 관심이 일본의 전통적 자연관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자연과의 교감·상생이라는 주제로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상생에 관한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에코페미니즘의 관점과 연관 지어 연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엄윤희(2008)는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연구’를 통해 에코페미니즘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엄윤희는 에코페미니즘 담론 내에서 세분화되는 이론적 차이를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급진적 여성론과 근본 생태론이 결합하여 문화구성적 생태여성론으로 발전하였다. 문화구성적 생태여성론은 여성과 자연의 생산성과 모성을 본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서구문명의 가부장제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여성론과 사회적 생태론이 결합하여 사회적 생태여성론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적 생태여성론은 사회적 생태론의 지배와 위계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의 근원을 인간사회의 진화과정에서 찾으면서 문화구성적 생태여성론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셋째로 여성론과 사회주의적 생태론이 결합하여 사회주의적 생태여성론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적 생태여성론은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사회의 변혁이, 자연 해방을 위해서는 생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3 세계의 착취를 근절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엄윤희를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 『이웃집 토트로[となりのトトロ]』, 『원령공주[もののけ姫]』, 『하울의 움직이는 성[千と千壽の神隠し]』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서구 가부장제의 극복, 공동체 의식, 생명체 존중의식, 녹색 자연의 낙원인 에코토피아에 대한 갈망이라는 에코페미니즘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전해정(2008)은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서 여성과 자연을 연관성 있게 다루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분석하는데 여성의 억압과 자연의 억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전해정은 에코페미니즘을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며 생명을 생산하는 어머니로서의 자연에 주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과 제3 세계의 경제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경제적 착취를 비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과학과 기술의 영역

에서 성적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발하면서 근대화의 과정이 남성과 여성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나누고 남성을 여성에 비해 우월하게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소년 코난[未來少年 コナン]』,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 『천공의 성 라퓨타[天空の城ラピュタ]』, 『원령공주[もののけ姫]』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미야자키의 하야오의 작품이 전쟁이나 과학, 기계문명에 의한 환경파괴와 자본주의에 의한 계급적 착취를 비판하고, 여성의 자연성과 모성을 옹호하며 여성 주인공들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진은경(2006)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과 에코페미니즘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진은경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루고 여성성·모성에 대한 탐구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연관을 살펴보고 작품에서 여성인물과 자연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숲과 나무를 자연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생명력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작품에서 자연은 하나의 영혼을 가진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여성은 자연과 세상을 이해하고 대화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공동체 마을을 생태적 공간으로 그려내면서 이상적인 에코토피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에 대한 분석을 통한 주제의식의 고찰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작품세계의 고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주목한 생태의식과 자연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의 여성상

에 대한 고찰이나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고찰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인물들에 대한 페미니즘 관점의 분석이 부족하거나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에코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고찰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에코페미니즘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여성 억압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찰하여 그것이 작가의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분석하고, 나아가 에코페미니즘적 공동체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가 에코페미니즘의 세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페미니즘 관점에서 작품을 조명하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고찰

1. 페미니즘 이론의 전개 과정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해석하는 새로운 분석 틀로 유의미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론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다. 우선,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곧바로 접근하기에 앞서 그 중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페미니즘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를 확장시켜 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따라, 또는 남녀 간의 성적(性的) 차이로 인한 차별을 혁파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자유주의 페미니즘·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급진주의 페미니즘·사회주의 페미니즘·실존주의 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코페미니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화되어 논의의 폭을 넓혀나가게 된다. 아래에서 간단히 서술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실현의 보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계몽주의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라는 가정 아래,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계몽주의는 근대시민사회가 형성

되는데 사상적·실천적 바탕이 되었으며, 이것을 토대로 여성의 존재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물음이 시작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는 1792년 그녀의 저서 『여성 인권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모두 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역설(力說)하였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에서 생물학적 성(性)의 차이를 근거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규정하고, 그것을 교육과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신념이 개인의 의식 속에도 자연스럽게 관념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Wollstonecraft는 이성과 인권을 신뢰하는 자신의 신념에 입각하여 여성의 이성과 인권을 옹호하였고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성 인권의 옹호』는 18세기 여성도 이미 스스로가 직면하고 있는 성차별적 상황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과 해리엇 테일러 밀(Harriet Taylor Mill, 1807~1858)은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함께 여성의 종속과 해방에 대해 논의한다. 1832년에는 함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초기 에세이들[Early Essays on Marriage and Divorce]』을 출간하였고, 1851년에는 Harriet Taylor Mill이 『여성의 해방[Enfranchisement of Women]』을, 1869년에는 John Stuart Mill이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을 각각 출간하였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시민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였다. 이들은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기회의 보장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즉 생물학적인 차이를 제외하고 나면 남성과 여

성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차이’를 배제하는 문제점을 노정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성을 배격하고 남성성을 지향하는 경향까지 보이게 되었다. 게다가 중상층 시민계급 여성의 입장을 총괄하여 대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과 인종 차이 등의 문제까지는 살피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에서 여성성이나 계급의 문제를 연구하는 또 다른 페미니즘 시각이 생성되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있어서 여성을 억압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다. 의도적인 개인 행위의 결과로 여성 억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연관된 정치·사회·경제의 산물로 여성 억압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Tong, 1998/2000, pp. 179-180). 곧,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 현상의 원인을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의 역사적 유물론의 개념 안에서 찾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생산수단과 부의 소유 여부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개인의 생산수단과 부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자유권과 평등권의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성별에 따른 억압보다는 계급에 따른 억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는 1884년에 출간한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에서 여성의 억압을 이야기하면서 가부장적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을 소유한 남성이 가장이 되어 부계 중심의 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은 그 의도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서서히 사회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족의 틀 안에 갇히게 되었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 역시 남성의 성적 욕구의 대상 또는 자녀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격하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일부일처제는 자연 조건이 아닌 경제 조건에 기초한 최초의 가족 형태이고,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Engels, 1972/1995). Engels는 여성 해방은 사유재산과 계급의 철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여성 해방의 전제조건으로 여성의 공적 산업으로의 재투입과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논의를 심화해 나가다가 결국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기원을 사유재산의 확립에 따른 가부장적 일부일처제 가족의 형성에서 찾아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한계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따르면 사유재산과 계급의 철폐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적 권력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해방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생산방식을 혁신하여 가부장적 일부일처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여성의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성(性)이나 출산의 문제는 오히려 간과된다. 그러나 여성의 성과 출산은 계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성의 성과 출산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그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성억압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결과적으로는 자본가에게 억압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존재가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남성에게 억압당하는 여성의 성적(性的)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계점이 생겨난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한계에 대한 비판은 계급과 성별의 문제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설명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연관 지어 연구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급진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을 최초의, 가장 보편적인, 가장 뿌리 깊은 인간의 억압 형태라고 파악하고, 가부장제와 생물학적 성이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계급이 아닌 생물학적 성(性)을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그들에 따르면 남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며 남성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여성의 육체를 통제해왔는데, 남성의 여성의 육체에 대한 통제는 피임·불임·낙태에 대한 법적 허가와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타·강간·성매매·포르노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송명희, 2012, p. 9; Tong, 1989/1995, p. 109).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이러한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한 통제를 가부장제의 물질 토대이자 여성 억압의 기본 체계로 상정하고, 가부장제의 철폐를 통해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고자 하였다(송명희, 2012, p. 9).

대표적으로 솔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 1945~2012)은 1970년에 출간한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에서 가부장제가 생물학적 불평등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Firestone은 가부장제에 기초한 법적·정치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제도가 여성 억압의 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이 여성의 정체감과 억압의 주요 원인이므로, 여성해방은 출산·양육 등의 여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정갑희, 2012, p. 370). Firestone은 Marx와 Engels의 역사적 유물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경제적 계급보다는 성 계급이 여성 억압의 핵심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역사적 유물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녀는 생산관계보다 재생산관계에 더 주목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 경제적 혁명이 필요한 것처럼 여성 해방을 위해 생물학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무산계급이 경제적 계급 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생산 수단을 장악해야 하는 것처럼 여성은 성적 계급 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출산의 통제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 주장의 핵심이었다. Firestone은 임신과 출산의 통제 기술을 통해 생물학적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재생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가족이 가부장적 가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Firestone은 생물학적 가족 개념이 사라지면 경제단위로서의 가족 개념도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여성은 더 이상 무보수의 가사노동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가 해체되면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애적 관계도 해체될 것이고, 동시에 남성과 여성 생식기의 결합에 사랑이라는 관념을 부여하는 가부장제 신화도 해체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Firestone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성 역할에서 해방되면 여성 해방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배와 대립의 관념들이 해체될 것이라고 믿었다.

-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계급과 성별이 여성억압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의 계급적 권력관계와 가부장제의 성별적 권력관계가 여

성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 가부장의 통제 아래 종속되었다. 여성은 공적영역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부장의 의해 행사되었던 만큼 여성은 자연스럽게 공적 영역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개인 중심의 시민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으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고, 개인의 자유의지가 강조되었다. 이론적으로 여성도 시민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자급자족의 생산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고, 생산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분법적인 성별분업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으며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른 성역할 분담의 논리가 근거로 사용되었다. 자연의 원리에 입각한 성역할 분담의 논리에 따라 생산은 공적영역의 것으로, 재생산은 사적영역의 것으로 나뉘었으며 남성이 생산 노동을, 여성이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여성은 그녀의 자궁을 통해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재화를 생산하는 남성의 노동은 유상의 노동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연의 원리에 따른 여성의 노동은 무상의 노동으로 평가되었다. 공적영역에서 행해지는 남성의 생산 노동이 사적영역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재생산 노동보다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로 인해 사적영역인 가정은 공적영역에서의 생산 활동을 끝낸 남성이 돌아가 쉬는 곳이 되었으며, 남성에 의한 지배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곳이 되었다. 결국 근대 시민사회에 들어 자연에 대한 이성의 지배는 보다 확고해졌으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는 그 형태만 달리할 뿐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의 계급적 권력관계와 가부장제의 성별적 권력관

계를 통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성이나 출산의 문제와 남성에게 성적
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 실존주의 페미니즘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인간의 의식이 초월
적 자아이자 관찰하는 자아인 주체와 내재적 자아이자 관찰 받는 자아
인 객체로 구성된다는 헤겔(Hegel, 1770~1831)의 철학을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즉자 존재는 인간이 동물·식물·
광물 등과 공유하는 반복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대
자 존재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공유하는 역동적이고 의식적인 존재라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대자 존재는 다른 존재를 대상[타자]으
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을 주체[자아]로 확립하는데 주체가 자기를 정의
하는 과정은 대상을 지배하기 위한 힘을 추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각 자아는 자신을 하나의 자아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타자의 역할을 묘
사하고 미리 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는 Sartre의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에 영향을 받아 즉자와 대자,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
자, 초월과 내재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활용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
와 타자가 된 여성의 위치에 대해 논의하였다(배은경, 2012, p. 290).

1949년 Beauvoir는 자신이 출간한 『제2의 성[The Second sex]』을
통해 철학적인 관점에서 여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Sartre의 철학적 사
유에 영향을 받은 Beauvoir는 여성문제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실존
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Beauvoir(1972/2011, p. 342)는
“여성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남성은 주체로 인식되는데 반해 여성은 타자로 인식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Beauvoir에 의하면 남성도 여성도 본래는 모두 주체인데 여성은 남성에 의해 타자로 규정된 상황에 순응함으로써 주체로서의 자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eauvoir는 여성이 스스로를 주체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남성의 지배 아래에서 타자로서의 자신을 내면화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규정되는 이유와 과정에 의문을 가지고 이를 규명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여성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을 고찰하였다.

생물학적 관점에 따르면 남성은 ‘수컷’이고, 여성은 ‘암컷’이다. 이것은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남성이 그것에 우열관계를 부여하면서부터 문제가 된다. 남성은 생물학적 차이가 우열의 차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사회 내 여성 억압적 상황을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Beauvoir는 여성이 성관계의 과정에서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종의 특성에 얽매이고 예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나 종속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의 몸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한다. Beauvoir는 또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검토하면서 프로이트(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학이 ‘남성을 원형’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인간의 성적 욕구와 행동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인간의 자아형성과 발달 과정에 바탕이 된다는 이론을 정립했다는 사실에 있어서 Freud의 정신분석학의 성과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남성의 남근을 중심으로 설명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남근의 존재 여부는 여성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reud가 주장하는 여성의 남근 선망도 여성이 남근 자체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성의 소유인 사회적 특권을 원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아이가 아버지에 갖는

승배는 아버지의 사회적 권위에 대한 승배이다. Freud의 정신분석학은 모든 것을 남근의 존재 여부와 남성의 성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의 성욕은 그 자체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남성의 성욕에 대입하여 다루어진다. Beauvoir는 Freud의 정신분석학은 여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성을 자신에게 요구되는 타자의 역할을 취할 것인지 자신이 요구하는 자아의 역할을 취할 것인지 갈등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여성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인간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유물론의 견해를 검토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공적 산업에 투입하고,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Engels의 주장에 동조한다. 그러나 Engels가 사유재산의 성립 과정과 그로 인한 여성의 예속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권력에 의지가 사유재산의 결과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Beauvoir는 인간의 의식 속에 타자라는 근본적인 범주와 타자를 지배하려는 근본적 의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남성에 의한 사유재산의 축적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더니즘의 남성·서양·이성·백인 중심적 사고를 해체한다. 그리고 주변적인 것도 중심적인 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분법적 가치관에서 열등한 것으로 위계화되었던 여성·동양·감성·흑인이 남성·서양·이성·백인만큼 중요하게 재평가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심리 분석과 언어 분석에 근거하여 진리의 단일성을 해체하고 다원성을 강조하듯이 최근의 거대이론이나 특정한 주의를 배격하고 기존의 모든 가치와 체계를 해체하고자 한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단일구조의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송명희, 2012, pp. 13-1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타자성에 대한 Beauvoir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쉽게 전용한다. 여성은 아직 타자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이러한 상황을 초월해야 할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대신 그것의 이점을 주장한다. 타자성의 상황은 지배문화인 가부장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규범, 가치, 실행들을 여성으로 하여금 비판할 수 있게 하니 타자성은 비록 억압,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억압당한 열등한 상황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타자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오히려 관대함,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차이를 허용하는 존재방식, 사고방식, 표현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 타자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해체의 주요 주제이다. 해체적 접근 방식은 특정 개념이나 사회 불의의 기초가 되는 구조, 그것들이 사고되는 언어, 그리고 그것들이 보호되는 체계 뿐 아니라 그 특정 개념이나 사회 불의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해체는 보편적인 정의의 추구행위를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점 뿐 아니라 미술, 과학,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과 같은 학문들은 물론, 이성·감성, 아름다움·추함, 자아·타자와 같은 반대되는 개념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선에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는 점에서 반본질주의적이다(Tong, 1989/1995, p. 345).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여성 억압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는

데 이를 통해 페미니즘이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가부장제, 계급, 성 [sex], 타자성[ootherness] 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여성 억압의 근원은 이 중의 어느 한 가지로 짚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사회 체계 내에서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에코페미니즘 역시 가부장제를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보고 있으며 가부장제가 어떻게 남성과 여성, 문화와 자연을 위계적으로 규정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타자성의 극복을 통해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 이성에 의한 자연 지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여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작품 분석의 근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2.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가 결합된 용어이다. 1974년 프랑수아즈 도본느(Françoise d'Eaubonne)가 『페미니즘 또는 죽음[Le Féminisme ou la Mort]』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d'Eaubonne(1974/1994)는 오늘날 인류가 인구과잉과 자연파괴라는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책임이 남성중심적인 사회제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이 땅의 생산력과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인구과잉과 환경파괴의 위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그 후 에코페미니즘은 계속되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과 여성해방을 이루고자하는 여성운동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에코페미니즘에 대

한 이론적 연구도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에코페미니즘이 주목하는 것은 여성과 자연이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르네상스 시대까지 우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세계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은 별과 행성이 살아있다는 것뿐 아니라, 대지도 그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생명과 운동을 불어 넣어주는 힘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지는 은혜롭고 감수성이 풍부한, 길러주는 여성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대지의 능력은 여성의 생식 및 양육 능력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고 길러주는 어머니로서의 대지의 이미지는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는 문화적 제약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어느 누구도 돈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여 내장을 파내거나 팔다리를 잘라 불구로 만들지 않는다. 대지가 살아있고 감정을 가진 것으로 개념화되는 한, 대지에 대한 파괴적인 행위는 인간의 윤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Merchant, 1992/2001). 이렇게 자연은 ‘여성화’ 되었고, 여성은 ‘자연화’ 되었다.

문제는 여성과 자연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과 자연을 대상화하고 남성의 지배 아래 종속하고자 하였다. 가부장제를 통해 유지되어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억압은 자본주의 경제의 등장,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인들은 부의 축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유럽의 신대륙 발견 열풍은 식민지 건설을 통해 부를 창출하려는 유럽인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대지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의식은 부의 축적을 방해하는 제약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 때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과 과학의 등장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경제 확립에 유용한 개념 틀과 세계관을 제공하였다. 이후로 자연은 정복하고 지배하며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베이컨(Bacon, 1561~1626) 이후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였고, 인간의 자연 지배를 옹호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후 자연은 유기체적인 존재에서 기계적인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자연과 동일시되었던 여성의 생식과 양육 능력 또한 점차적으로 남성의 통제가 가능한 기능으로 인식되었다.

카렌 J. 워렌(Karen J. Warren, 1990)은 여성의 지배와 자연의 지배 사이에 보이는 중요한 연관성들은 상당히 개념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가부장제 억압의 기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가부장제는 억압적인 개념 틀을 통해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종속을 설명하고 유지하며 정당화한다. 가부장제의 억압적인 개념 틀은 가치위계적인 사고, 가치 이원론, 지배 논리라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 구성된다. 가치위계적인 사고는 모든 것을 ‘상(上)’과 ‘하(下)’로 나누어 사고하고, ‘하’보다 ‘상’에 보다 높은 가치와 지위, 혹은 권위를 부여한다. 가치 이원론은 서로 짝을 이루어 분리되어 있는 개념들을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 대립적으로, 포괄적이라기보다 배타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하나에 다른 하나보다 높은 가치, 지위, 권위를 부여한다. 남성과 여성,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의 구분이 그 예로, 가부장제는 역사적으로 남성·정신·이성과 여성·육체·감성을 동일시하며 남성·정신·이성을 여성·육체·감성에 비해 보다 높은 가치와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해 왔다. 지배 논리는 종속을 정당화하는 논증 구조로 기능한다. 그 자체가 종속을 허용하거나 제재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가치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특

성을 기반으로 가부장제의 억압적인 개념 틀은 이성을 지닌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성은 정신과 함께 남성과 동일시되는 개념이므로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남성에 의한 여성과 자연의 종속이 정당화된다.

에코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과 자연을 남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Warren(1988, p. 151)은 “에코페미니즘의 윤리는 남성의 여성과 자연 지배에 대한 비판이자, 남성적 편견 없이 여성과 자연에 대한 윤리를 구축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는 인종, 계급, 연령, 민족적 고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자리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러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낸다.”고 밝히고 있다. ‘남성의 여성과 자연 지배에 대한 비판’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자 가부장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이성에 대한 비판이다. 가부장제는 이미 여성을 억압하는 기체로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에코페미니즘 또한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종속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가치위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Plumwood(1993/2000, p. 115)는 지배자 모형이라 불릴 만한 백인 남성 엘리트가 자연 영역을 배제하고 지배한다는 가정이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중심적인 지배자 모형은 ‘백인 남성’을 인간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이는 자연 영역의 배제와 지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성의 배제와 지배를 초래한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지배자 모형이 일반적인 ‘인간’ 모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성과 자연이 배제되고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가려진다. 결국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것은 나아가 인간을 자연과 구분하는 특성인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Plumwood는 Warren과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배자 모형에 적용되는 이성과

합리성은 ‘가부장제의 억압적인 개념 틀’에 의해 가치위계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여성과 자연의 해방을 위해서 수정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여성과 자연에 대한 배제는 여성과 자연이 ‘타자’로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Beauvoir(1972/2011)는 『제2의 성』에서 여성들이 제2의 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자가 되기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여성들이 타자로서의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연관성을 초월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Plumwood(1986)는 여성이 자연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자연과 거리를 둔다면 남성과 같아질 뿐이라고 우려한다. Beauvoir의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과정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이 여성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남성우월적으로 개념화된 자유와 초월이라는 남성의 영역에 흡수되고 동화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이 ‘타자’로서 규정되는 것을 비판적인 의식 없이 내면화해서도 안 되지만 ‘타자’로서 규정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남성화되어 ‘남성’에 흡수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남성처럼 되는 것이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학의 중심에 놓일 것은 주체-주체의 상호성이라는 원칙이다. 이는 연구대상이 다시금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자체의 존엄/영혼/주체성을 부여받을 것을 전제한다. 새로운 과학은 우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우리가 육체를 가졌음을, 우리가 어머니 대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여성으로 태어났고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한다(Mies & Shiva, 1993/2000, p. 71).

마리아 미즈(Maria Mies)는 여성과 자연이 타자성을 벗어나 주체-주

체 상호성의 원칙을 정립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주체-주체의 상호성은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각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가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때 상대에 대한 배제와 지배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가부장제의 억압적인 개념 틀을 구성하는 가치위계적인 사고, 가치 이원론의 개념도 무의미해진다.

Plumwood(1991; Warren, 1997: 박혜영, 2011에서 재인용) 역시 관계 맺는 자아(self-in-relation)라는 개념을 통해 나와 상대하는 자연이나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계 맺는 자아는 문화적으로 제기된 이익의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거짓된 이분법을 깰 수 있고,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연속성을 둘 다 인정하면서 불분명함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관계와 상호의존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자아의 전통적인 여성의 합병과 남성의 분리를 둘 다 피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체로서의 자율적 의지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연속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주체성과 자연의 독립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Warren(1997: 박혜영, 2011에서 재인용)은 여성과 자연, 혹은 다른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로의 고유한 본질마저 사라진 융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에코페미니즘은 일견 타당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개발 논리가 가부장제의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개발을 통해 인간이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근대화화 진보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개발을 통한 근대화화는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산업선진국과 거대자본을 지닌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식민화를 통해 획득된다. 산업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은 생산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제공받아 공장을 짓고, 산업선진국에서 소요하는 비용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개발도상국 지역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도상국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소비자는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니고, 선진산업국의 소비자들이다. 선진산업국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상품의 생산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선진국의 소비자들은 그 대가로 개발도상국의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적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공장 건설로 인해 지역 환경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모자라 생계수단마저 빼앗긴 채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이들의 삶은 결국 근대화와 개발의 논리에 의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존재는 여성이다. 경제적 개발 논리에 의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공장이 들어서면 남성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공장 노동 인력으로 제일 먼저 고용되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은 가정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제공하던 공간을 잃게 된다. 자급적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돈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경제적 소비를 요구한다. 결국 개발도상국 지역의 여성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손해에 직면하게 되고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제3 세계의 여성과 어린이는 농촌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해 줄어들어 장작과 물을 얻기 위해 더 멀리 걸어 나가야 하며, 도시지역에서는 돈을 더 받는 옥외노동을 해야 한다. 특히 여성은 가정의 주된 부양자로서 가계유지를 위한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만큼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은 줄어든다. 이로 인해 때

로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의 부담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은 더 많은 여자아이들이 노동력으로 차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저개발, 그리고 척박한 환경조건의 희생자들인 여성들과 아이들은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생존하며 아무런 권리도 목소리도 갖지 못한다(Mies & Shiva, 1993/2000, pp. 111-112).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이와 같은 개발 논리를 비판하고 무분별한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가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소수의 산업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개발이 인류 전체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경제적 식민화 상태에서 벗어나 각자의 생활방식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대안으로 소규모의 자급적 공동체를 제시한다. 에코페미니즘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소규모의 자급적 공동체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가능한 생활 방식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그들 자신들과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저항할 힘을 발휘하였다. 인도의 여성들은 벌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칩코운동이라는 비폭력 생태운동을 전개하였다.²⁾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사례는 미국 러브운하의 주민 연합에 관한

2) 칩코(Chipko)는 ‘얼싸안기’라는 의미의 힌두어로 칩코운동은 1974년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1974년 인도 북부 레니 지역에서 벌목업자들이 숲을 파괴하려고 하자 그 지역에 사는 27명의 인도 여성들은 나무를 자르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나무에 묶었다. 이 항의 농성으로 여성들은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유역을 구해내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칩코운동의 활동영역은 이후 20여 년 동안 살아 있는 산과 물까지 확대되었으며 칩코 운동을 지속시킨 힘의 원천은 지역의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칩코운동에 대해서는 Tong, R. P.(1998). “Ecofeminism,” *Feminist Thought*. Colorado: Westview Press. pp. 268-273, Mies,

것이다. 이 지역의 젊은 주부들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투쟁하였고 결국 위험한 화학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정보 센터를 설립했다.³⁾ 세계 도처의 환경파괴 지역과 오염지역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곳에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생존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을 고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구 및 그녀의 자녀들과 이해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Mies & Shiva, 1993/2000, p. 112). 에코페미니즘은 이처럼 여성중심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자급적인 공동체 생활의 회복을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대항하고 현재의 척박한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여성과 자연이 주체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자연이 주체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인간은 이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지배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 타자성을 극복하고 주체-주체의 상호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급적 공동체의 형성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현하는 생활방식으로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페미니즘 이론의 전개 과정과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계의 세계적 거장, 미

M & Shiva, V.(1993). *Ecofeminism*. 손덕수·이난아 역(2000). 『에코페미니즘』. 서울: 창작과 비평사. pp. 303-308, Warren, K. J.(2000). *Ecofeminist Philosoph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p. 2-3. (박혜영 외(2011). 「생태 파괴 시대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파주: 문학동네. pp. 425-426 재인용.) 참조.

3)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에 위치한 러브운하에 1940년대 Hooker 화학회사 사가 화학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1970년대 러브운하에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증상의 질병과 유산 및 기형아 출산을 경험하였다. 러브운하에 대해서는 Mies, M & Shiva, V.(1993). *Ecofeminism*. 손덕수·이난아 역(2000). 『에코페미니즘』. 서울: 창작과 비평사. pp. 108-109 참조.

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작품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작품 분석의 틀은 모두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애에 대한 비판이며, 둘째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주체-주체의 상호성 실현의 모색이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이 공간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성의 용해이다. 이 세 가지 분석틀은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적인 특성을 작품 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분석틀을 본격적으로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가 에코페미니즘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해내고자 한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논의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하여 작가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의 두 작품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Ⅲ. 에코페미니즘과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1. 작품의 서사 단락 구성

연구자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작품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소거하고 각 작품의 서사적 흐름에 주목하였다. 이는 작품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서사적 흐름 안에서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 가부장제의 억압과 착취, 자연과 인간의 공존, 공동체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1)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서사 단락 구성

거대산업문명이 붕괴한 지 1000년, 녹과 세라믹 파편에 뒤덮여 황폐해진 대지와 썩은 바다. 부해(腐海)라고 불리는 유독의 장기(瘴氣)를 내뿜는 균류의 숲이 넓어져 쇠퇴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 여행을 하던 유과는 균류와 벌레들에게 잠식당해 폐허가 된 마을을 발견한다.

(2) 태피스트리⁴⁾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여신을 암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3) 나우시카는 메베(メーヴェ, 소형경량비행장치)를 타고 하늘을 날아 부해(균류의 숲)에 도착하고, 부해의 곳곳을 탐험하면서 균류의 포자를 수집하고 오무라는 벌레의 허물을 발견해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

4) 다채로운 선염색사(先染色絲)로 그림을 짜넣은 직물

료가 되는 부분을 채취한다.

(4) 나우시카가 오무에게 쫓기고 있던 유파를 구하고 섬광탄과 충적(蟲笛)⁵⁾을 써서 오무를 부해로 돌려보낸다.

(5) 스승인 유파와 재회한 나우시카는 유파가 오무에게서 구한 키츠네 리스라는 동물을 달래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

(6) 나우시카와 유파는 바람 계곡으로 돌아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바람 계곡의 지도자이자 나우시카의 아버지인 질과 큰할머니를 만나 유파의 여행과 바람 계곡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7)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이 벌레들의 공격을 받고 바람 계곡에 추락한다.

(8) 그들을 도우려던 나우시카는 추락 현장에서 두 손이 묶인 소녀를 구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페지테의 라스텔이라고 밝히며 짐을 태워달라고 말하고 죽는다.

(9) 나우시카는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우시아브라는 벌레를 충적을 써서 부해로 돌려보내고, 부해의 근처에서 우시아브가 부해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다가 멀리서 오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10) 바람 계곡 사람들은 대형비행선에 붙어 날아온 부해의 포자가 바람 계곡을 잠식하기 전에 포자를 찾아 태워 없애기 위해 애쓴다.

(11) 추락 현장에서 페지테에서 발굴되었다고 알려진 거신병의 알⁶⁾이 발견되고, 토르메키아가 거신병의 알을 되찾기 위해 바람 계곡을 침략한다.

(12) 토르메키아의 병사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을 목격한 나우시카는 분노해 병사들을 공격하고 죽인다.

(13) 나우시카는 바람 계곡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토르메키아군에 투

5) 공기의 흐름으로 벌레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도구

6) 과거에 인간이 만든 거대 기계 인간의 알

항하고, 토르메키아의 변경과견군 사령관인 크샤나는 토르메키아가 주변국을 통합하고 부해를 불태워 인간의 세계를 되돌릴 것이라고 선포한다.

(14) 큰할머님은 인간들이 부해를 불태워 없애려 할 때마다 벌레들이 분노하여 오히려 인간들이 화를 입었다며 부해를 태우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15) 크샤나는 거신병의 알을 바람 계곡에서 부화할 계획을 세우고 나우시카와 바람 계곡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필요한 물자와 식량, 그리고 인질들을 내어놓을 것을 강요한다.

(16) 유파는 나우시카가 숨겨진 비밀의 방에서 부해의 포자들을 수집해 식물들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우시카는 부해의 포자식물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에서 키웠을 때는 독성을 내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오염된 흙이라고 말한다.

(17) 나우시카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분노와 증오를 느껴 병사들을 죽였다고 하며 더 이상 그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한다.

(18) 바람 계곡에서 빼앗은 물자와 식량, 인질들을 싣고 페지테로 돌아가던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은 페지테의 건십(ガンシップ, 소형전투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데, 인질로 타고 있던 나우시카는 대형비행선에 실려 있던 바람 계곡의 건십을 타고 탈출하면서 크샤나도 구해준다.

(19) 나우시카는 그녀와 함께 인질로 끌려가던 바람 계곡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바지(バージ, 엔진이 없는 수송용 글라이더)가 대형비행선과 분리되어 추락하려고 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하고 부해에 불시착한다.

(20) 크샤나가 총으로 나우시카와 바람 계곡 사람들을 위협하고 나우시카는 크샤나에게 부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때 오무들이 나타

나 그들을 둘러싸고 크샤나는 오무들의 등장으로 두려워하는데 반해 나우시카는 앞으로 나서 오무들을 달랜다.

(21) 오무들과의 교감을 통해 페지테의 건십에 타고 있던 비행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우시카는 그를 구하려 하고 벌레들의 공격을 받은 나우시카와 비행사는 부해의 바닥으로 떨어진다.

(22) 부해의 바닥으로 떨어지며 의식을 잃은 나우시카는 오무의 유충을 살리고자 했던 어린시절 꿈을 꾸다 깨어난다.

(23) 깨어난 나우시카는 부해의 바닥에 깨끗한 공기와 물이 흐르고 석화된 나무가 부서져 깨끗한 모래가 되어 쌓이는 것을 보고 부해가 자정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24) 바람 계곡으로 돌아온 바람 계곡 사람들과 크샤나는 유파와 만나고 유파는 크샤나에게 거신병을 없애고 토르메키아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한다.

(25) 유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크샤나는 거신병을 없앨 방법은 없다고 말하며 부해를 태우고 벌레를 죽여 인간의 세계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6)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이 바람 계곡에 추락할 때 바람 계곡에 퍼진 포자가 남아서 바람 계곡의 숲을 잠식해나가는 상황에서 유파는 건십을 타고 나우시카를 찾으러 가고, 바람 계곡은 숲에 깊이 퍼진 포자로 인해 숲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27) 바람 계곡 사람들에게 결박당해 있던 크샤나는 결박을 풀고 탈출한다.

(28) 나우시카는 페지테의 아스벨과 함께 부해를 떠나 아스벨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페지테로 향하고 벌레들의 공격으로 폐허로 변한 페지테를 발견한다.

(29) 나우시카는 페지테의 남성들을 만나 그들이 벌레들을 이용해 폐

지테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토르메키아군을 전멸시키고 거신병의 알을 되찾기 위해 바람 계곡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30) 나우시카는 페지테의 남성들에게 부혜의 자정작용에 대해 설명하지만 페지테의 남성들은 나우시카의 말을 듣지 않고 바람 계곡에 벌레들의 공격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나우시카를 감금한다.

(31) 토르메키아 대형비행선의 추락으로 인해 숲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 바람 계곡 사람들은 토르메키아군에 저항하고 탈출한 크샤나는 토르메키아의 병사들을 이끌고 바람 계곡 사람들과 대치한다.

(32) 비행 중이던 토르메키아의 콜벳트(コルベット, 전투기)가 비행 중인 페지테의 브릭(ブリック, 수송기)을 발견하고 페지테의 여성들은 아스벨과 함께 나우시카의 탈출을 돕는다.

(33) 토르메키아의 콜벳트가 페지테의 브릭을 공격하고 토르메키아의 병사들이 브릭 안으로 침입해 전투가 벌어진다.

(34) 탈출한 나우시카는 메베를 타고 바람 계곡으로 향하는데 토르메키아의 콜벳트가 나우시카의 뒤를 쫓으며 공격하고 그때 유파가 탄 바람 계곡의 건십이 나타나 콜벳트를 격추시키고 페지테의 브릭을 구하러 간다.

(35) 유파는 브릭에 뛰어들어 토르메키아의 병사들을 제압하고 나우시카는 건십을 타고 바람 계곡으로 향한다.

(36) 바람 계곡 사람들과 대치한 크샤나는 바람 계곡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나우시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37) 크샤나는 붙잡았던 바람 계곡 사람들을 풀어주고 바람 계곡 사람들은 바람이 멎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한다.

(38) 바람 계곡으로 향하던 나우시카는 분노한 오무의 무리들이 바람 계곡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페지테의 남성들이 오무의 유충을 붙잡아 분노한 오무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오무의

유충을 구하러 한다.

(39) 나우시카는 메베를 타고 유충을 구하러 가고 건십에 함께 타고 있던 미토는 조명탄으로 바람 계곡에 귀환을 알리는데 크샤나는 이를 보고 출격을 명령한다.

(40) 토르메키아군이 돌격하려는 순간 건십이 착륙하고 오무의 무리가 습격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람 계곡 사람들은 다급히 대피하는데 크샤나는 거신병을 깨워 오무의 무리들에게 대적하러 한다.

(41) 오무의 유충을 붙잡고 있던 페지테의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나우시카를 공격하고 나우시카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오무의 유충을 구하기 위해 페지테의 비행체에 뛰어든다.

(42) 나우시카는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며 산성호수에 들어가려는 오무의 유충을 막다가 자신의 상처 입은 다리에 산성호수의 물이 닿아 괴로워한다.

(43) 나우시카의 희생에 오무의 유충은 진정을 하고 나우시카는 페지테의 남성들을 위협해서 자신과 오무의 유충을 오무의 무리 곁으로 데려다 달라고 한다.

(44) 크샤나가 거신병을 데려와 오무의 무리를 공격하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거신병은 두 번째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고 녹아내리고 만다.

(45) 나우시카는 오무의 유충을 무리에 돌려주지만 오무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나우시카와 오무의 유충은 돌진하는 오무의 무리에 치이고 만다.

(46) 유과와 페지테의 사람들이 브릭을 타고 바람 계곡을 향해 가는데 멀리서 바람 계곡을 가득 채운 오무들의 분노의 붉은 빛이 사라지는 것이 보이고, 나우시카의 희생으로 인해 오무의 무리는 분노의 돌격을 멈추고 죽은 나우시카를 생명의 힘으로 되살린다.

- (47) 큰할머니님과 바람 계곡 사람들은 되살아난 나우시카의 모습을 통해 바람 계곡의 전설이 나우시카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 (48) 바람 계곡에 멈춰있던 바람이 다시 불고 바람 계곡과 폐지테의 사람들이 나우시카가 되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오무의 무리는 부해로 돌아가고 크샤나도 병사들을 이끌고 토르메키아로 돌아간다.
- (49) 바람 계곡 사람들과 폐지테의 사람들은 바람 계곡에서 바람 계곡의 생활 방식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간다.
- (50) 유파와 아스벨은 함께 부해를 향한 여행을 떠나고 나우시카와 아스벨이 떨어졌던 부해의 바닥에서 새싹이 돌아난다.

2) 『원령공주』의 서사 단락 구성

옛날, 이 나라는 깊은 숲에 뒤덮여 그곳에는 태고(太古)부터 신들이 살고 있었다.

- (1) 숲에 재앙신[タタリ神]이 나타나고 재앙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가 쓰러지고 풀이 시들어 죽는다.
- (2) 야쿠르를 타고 마을 근방을 돌아보던 소년 아시타카는 마을의 소녀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마을로 돌아가라는 무녀 히이의 말을 전한다.
- (3) 재앙신이 숲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정체는 흉측한 무언가에 둘러싸인 커다란 멧돼지신[イノシシ神]으로 재앙신이 마을로 향하자 아시타카는 재앙신을 막기 위해 뒤를 쫓는다.
- (4) 마을로 돌아가는 소녀들을 발견한 재앙신은 그녀들을 공격하고 아시타카는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재앙신에게 활을 쏘는데, 이때 재앙신을 휘감고 있던 흉측한 물질이 아시타카의 오른팔을 덮치고 아시타카

는 살기 위해 다시 화살을 쏘아 재앙신을 쓰러뜨린다.

(5) 무녀 히이가 마을 사람들과 아시타카의 팔에 난 상처를 돌보면서 멧돼지신의 한을 달래려하지만 멧돼지신은 인간을 저주하며 죽음을 맞고 히이는 점을 쳐 멧돼지신이 먼 서쪽에서 왔으며 몸에 난 상처의 독으로 인해 몸이 썩어가며 저주가 쌓여 재앙신이 된 것이라고 한다.

(6) 히이는 아시타카의 팔에 생긴 상처가 재앙신의 저주로 아시타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고 마을에서 죽음을 맞을 것인지 멧돼지가 온 먼 서쪽으로 떠나 저주를 풀 방법을 찾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면서 멧돼지신의 몸에서 나온 쇠붙이를 보여준다.

(7) 아시타카는 운명에 맞서 서쪽으로 떠날 것을 선택하고 서쪽으로 향하던 중 마을 근처로 내려왔다가 무사들이 농민들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무사들에게 활을 쏜다.

(8) 아시타카가 활을 쏘려고 하자 팔의 상처가 부풀며 아시타카는 고통을 느끼고, 아시타카가 쏜 화살은 단번에 무사의 팔과 목을 날려버리는데 이후 아시타카는 팔에 남은 저주의 흔적이 더 짙어진 것을 확인한다.

(9) 아시타카가 시장에서 쌀을 산 값으로 사금을 건네자 여성 상인은 돈이 아니라며 받으려 하지 않는데 이때 지코보우(ジコ坊)가 나타나 사금의 값어치가 쌀의 양보다 더하다며 아시타카를 도와주고, 지코보우는 자신이 아시타카로 인해 목숨을 건진 농민의 무리에 섞여 있었음을 밝히며 고마움을 전한다.

(10) 아시타카가 여행을 하는 이유를 밝히자 지코보우는 계속 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시시가미(シシ神)의 숲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준다.

(11) 비 오는 밤 에보시와 소몰이꾼들이 소에 쌀을 실은 채 계곡의 오르고 있는데 들개들과 산이 나타나 에보시와 소몰이꾼들을 공격하고 에보시의 병사들은 들개들과 산을 향해 총을 쏜다.

(12) 들개들과 산의 어미인 들개신 모로가 나타나 소몰이꾼들을 공격하고 에보시는 모로에게 총을 쏘는데 이 총에 맞은 모로는 연이어 병사들의 공격을 받고 계곡 밑으로 떨어진다.

(13) 다음 날 아시타카는 계곡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고 계곡 건너편에 나타난 모로 일행과 마주하게 되는데 인간 소녀인 산이 어미인 들개신 모로의 상처에서 피를 빨아 빨어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을 걸지만 모로 일행은 숲으로 사라진다.

(14) 아시타카가 구한 소몰이꾼이 깨어나 숲의 정령인 코다마(コダマ)를 보고 겁에 질리는데 아시타카는 코다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숲이 풍요롭다는 증거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주변에 모여든 코다마들에게 숲을 지나가겠다고 허락을 구한다.

(15) 소몰이꾼이 숲을 두려워하며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숲이라고 말하지만 아시타카는 상처 입은 소몰이꾼들을 빨리 마을로 옮기기 위해 숲을 가로지르고 코다마들은 그들 주변에 모여들어 함께 숲을 가로지른다.

(16) 코다마들을 따라 숲의 안 깊은 곳에 도달한 아시타카는 못(池)가에서 휴식을 취하다 건너편을 지나는 시시가미의 무리를 보게 되고, 아시타카가 갑자기 상처가 부풀어 올라 괴로워하는 사이에 시시가미는 사라진다.

(17) 시시가미와 마주한 후 아시타카는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소몰이꾼도 다친 곳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18) 숲을 가로지른 아시타카와 소몰이꾼들 앞에 타타라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은 호수를 건너 타타라 마을에 도착한다.

(19) 타타라 마을은 제철소를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공동으로 일을 하고 철을 팔아 사온 쌀도 공동으로 나누는 생활을 하는 곳이다.

(20) 마을의 남성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아시타카는 타타라 마을의 지

도자인 에보시가 팔려나온 여성들을 모두 마을로 데려와 제철소에서 일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에보시와 병사들이 나고노카미(ナゴの守)라 불리는 멧돼지신을 총으로 쏘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에보시를 찾아간다.

(21) 타타라 마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시타카가 여행하는 이유를 묻는 에보시에게 아시타카는 팔의 상처를 보여주고 에보시가 쏜 총에 맞은 멧돼지신이 재앙신이 되어 남긴 상처임을 알린다.

(22) 에보시는 아시타카에게 총의 비밀을 알려준다며 데려가는데, 아시타카는 에보시를 따라가는 길에 마을 여성들이 제철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에보시는 자신의 정원에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에 데려온 나병 환자들에게 총을 만드는 일을 맡긴 것을 보여준다.

(23) 아시타카는 신의 숲을 빼앗고 신을 재앙신으로 만들고도 계속 총을 생산하는 에보시에게 화를 내고 아시타카가 분노하자 그의 팔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며 아시타카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칼을 뽑으려 한다.

(24) 총을 만드는 작업장의 나병환자가 아시타카에게 병든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하며 돌봐준 사람은 에보시 뿐이라며 에보시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25) 에보시는 신을 죽이고 숲을 이용해 인간이 살기 좋은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며 아시타카에게 함께 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26) 아시타카는 에보시의 정원에서 나와 제철소로 향하고, 여성들에게 제철소의 일이 힘들지 않느냐고 묻는데 마을 여성들은 마을 밖에서의 생활보다는 타타라 마을에서의 생활이 좋다고 말한다.

(27) 산이 에보시를 죽이기 위해 타타라 마을에 숨어들어오고 이를 알아챈 아시타카가 산을 말리려하지만 산과 에보시는 목숨을 건 결투를

별이게 된다.

(28) 산과 에보시를 말리려던 아시타카는 팔에 걸린 저주의 힘을 빌려 두 사람을 제압하는데 산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다 마을 여성이 쏜 총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 입은 몸으로 산을 데리고 타타라 마을을 떠난다.

(29) 아시타카는 상처로 인해 쓰러지고 산은 자신을 방해한 아시타카를 원망하고 죽이려 하지만 아시타카는 산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며 산에게 아픔답다고 말하고 아시타카의 말에 놀란 산은 아시타카를 시시가미의 숲에 있는 못으로 데려간다.

(30) 밤 동안 데이다라봇치(ディダラボッチ)라 불리는 거대한 신의 형상을 띠었던 시시가미는 날이 밝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천황으로부터 시시가미의 목을 베어오라는 명령을 받은 지코보우 일행은 데이다라봇치가 시시가미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시시신의 거처를 알아내고자 한다.

(31) 숲의 못에 모습을 드러낸 시시가미는 아시타카에게 다가가고 산이 아시타카의 머리맡에 꽂아놓은 풀은 시시가미가 코를 갖다 대자 시들어 죽어버린다.

(32) 산을 내려온 지코보우 일행은 친제이(鎮西)⁷⁾산의 옷코토누시(乙事主; おっことぬし)라고 하는 멧돼지신이 무리를 이끌고 시시가미의 숲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된다.

(33) 아시타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렴풋이 시시가미가 자신에게 다가와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을 느끼고, 깨어났을 때 뺨에 베인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총에 맞은 상처는 없어진 것을 깨닫는다.

(34) 아시타카는 자신의 팔에 있는 저주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상심하는데, 산이 나타나 시시가미가 아시타카를 살려주었

7) 九州의 다른 이름

으니 자신도 그를 돕겠다며 기력이 없는 아시타카를 돌본다.

(35) 숲의 못에 모로와 들개들이 나타나고 멧돼지의 무리도 나타나는데, 멧돼지의 무리는 시시가미의 숲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숲의 수호신인 시시가미가 나고노카미는 살려주지 않고 인간인 아시타카는 살려주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36) 모로는 시시가미가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잊었냐며 나고노카미의 죽음은 시시가미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아시타카는 자신이 재앙신이 되어 마을을 습격한 나고노카미를 죽였다고 밝힌다.

(37) 옷코토누시가 숲의 못에 나타나자 아시타카는 옷코토누시에게 나고노카미의 최후를 전하고, 옷코토누시는 멧돼지의 무리를 이끌고 인간과 싸울 것이라고 한다.

(38) 장에 갔다 돌아오던 에보시와 마을 사람들은 타타라 마을을 노리는 아사노의 무사들과 들판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무사들을 물리치고 마을로 돌아가는 에보시의 앞에 지코보우가 나타나 시시가미의 목을 베라는 왕명을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39) 에보시와 타타라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사노 측에서 사자를 보내지만 마을의 여성들은 에보시의 명에 따라 그들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총을 쏘 쫓아낸다.

(40) 에보시와 지코보우의 대화를 통해 천황이 시시가미를 죽이기 위해 에보시를 지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41) 지코보우의 병사들이 타타라 마을에 찾아와 전투를 준비하고 에보시는 마을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42) 모로와 산의 거처에 머무르며 기력을 회복하던 아시타카는 모로에게 숲과 인간이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갈 방법이 없느냐고 묻지만 모로는 인간들이 숲을 공격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고 말한다.

(43) 아시타카는 모로에게 산을 숲과 인간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모로는 산이 자신이 키운 딸로서 숲과 운명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44) 아시타카는 모로에게 숲과 인간이 싸우지 않고 자신과 산이 함께 살아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로는 아시타카가 저주의 상처로 인해 곧 죽을 것이라고며 숲을 떠나라고 한다.

(45) 아시타카는 들개의 인도를 받으며 숲을 벗어나고, 산에게 에미시 부족의 마을을 떠날 때 카야로부터 받았던 보호의 부적을 전해달라고 들개에게 부탁한다.

(46) 산은 모로와 함께 숲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인간들을 지켜보면서 모로에게 전투에서 패할지라도 웃코토누시를 도와 인간들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숲과 인간의 전투가 시작된다.

(47) 숲을 벗어난 아시타카는 타타라 마을이 무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타타라 마을로 향한다.

(48) 아시타카는 타타라 마을 여성들의 필사적으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을의 아래쪽이 무사들에게 점령당한 것을 보고 마을 여성들에게 에보시를 불러오겠다고 약속하고 숲으로 돌아가 타타라 마을의 남성들에게 마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린다.

(49) 산과 웃코토누시는 시시가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숲의 못으로 향하고 시시가미의 목을 노리는 에보시와 지코보우의 일행이 그 뒤를 쫓는데 웃코토누시는 멧돼지의 탈을 뒤집어쓴 인간들을 동족인 멧돼지의 무리라고 착각하고 그들을 이끌고 시시가미의 거처로 간다.

(50) 인간의 공격으로 상처 입은 웃코토누시는 인간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재양신으로 변해가고 웃코토누시를 말리려던 산은 인간의 공격을 받고 재양신이 되어가는 웃코토누시의 곁에서 재양신에게 잠식당해간다.

(51) 들개들을 통해 산이 위험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아시타카는 산을 구하러 가는 길에 시시가미를 죽이러 가는 에보시와 지코보우 일행과 마주하고 에보시에게 마을의 위험을 알린다.

(52) 에보시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시타카에게 시시가미를 죽이지 말고 무사들을 죽이라는 것이냐고 묻는데 아시타카는 숲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방법은 없느냐고 되묻는다.

(53) 에보시는 아시타카의 말을 듣고도 시시가미를 죽이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아시타카, 에보시와 지코보우의 일행, 모로, 옷코토누시와 산까지 모두가 숲의 못에 모인다.

(54) 못에 쓰러져있던 모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 옷코토누시로부터 산을 구해내고 시시가미가 나타나 옷코토누시와 모로의 생명을 거둔다.

(55) 에보시는 밤이 되어 데이다라봇치로 변하기 시작한 시시가미에게 총을 쏘아 시시가미의 목을 날려버리는데, 목을 잃은 시시가미는 재앙신이 되고 그로부터 흘러나온 액체가 닿은 숲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숲의 정령인 코다마들도 생명을 잃는다.

(56) 에보시는 재앙신의 저주를 피해 시시가미의 목을 지코보우에게 넘기고 그 순간 이미 죽은 모로의 머리가 깨어나 에보시의 팔을 물어뜯는다.

(57) 지코보우는 시시가미의 목을 챙겨 숲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아시타카는 재앙신의 저주에 둘러싸여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에보시와 곤자를 못으로 인도해 구해낸다.

(58) 데이다라봇치의 형상으로 재앙신이 된 시시가미는 목을 되찾기 위해 숲을 헤매고 재앙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드리운다.

(59) 아시타카는 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산은 인간을 돕는 아시타카에게 증오를 드러내고, 아시타카는 산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살아서 함께 시시가미에게 목을 되찾아주자고 한다.

(60) 재앙신은 목을 되찾기 위해 지코보우 일행을 쫓고 재앙신의 저주는 널리 퍼져 숲을 죽이고 타타라 마을까지 위협하는데, 아시타카는 타타라 마을 사람들에게 재앙신의 저주를 피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알려준다.

(61) 아시타카와 산이 시시가미의 목을 되찾아 돌려주자 목을 되찾은 데이다라봇치는 본래의 형상을 되찾은 채 쓰러지고, 시시가미가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생명을 되찾기 시작한 숲과 타타라 마을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난다,

(62) 타타라 마을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상처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시시가미가 생명의 신이었음을 깨닫는다.

(63) 산은 숲이 되살아났지만 신은 죽고 말았다며 상심하는데 아시타카는 시시가미가 생명 그 자체로 생과 사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저주의 상처가 사라진 것은 시시가미가 자신에게 “살아라”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

(64) 아시타카는 산에게 산은 숲에서 자신은 타타라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며 야쿠르를 타고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하고, 에보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더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한다.

(65) 새싹이 돋은 숲의 호수에 코다마가 나타난다.

2. 에코페미니즘을 통한 작품 분석

이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 작품의 서사단락을 단락별로 활용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

가부장제는 페미니즘이 여성 억압의 기제 중 하나로 오래 전부터 다루어온 것이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가부장으로서 가족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가족 구조가 사회 구조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실비아 월비(Sylvia Walby, 1990/1996, p. 41)는 가부장제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와 관습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의한 성별과 성 활동에 대한 차별이 근본적인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 역시 여성과 자연을 억압하는 근원을 가부장제에서 찾고 있다. 나아가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가부장제의 지배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에게도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성에 의한 자연의 억압은 계몽주의와 관련이 있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 계몽주의 철학이 확립되면서 남성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존재로 거듭났다. 인간이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계몽주의 철학의 도입 이전에 인간에게 자연은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신화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계몽주의 철학의 도입 이후 자연은 인간이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계적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르 W. 아도르노(Marx Horkheimer & Theodor W. Adorno, 1994/2002; 또한 Horkheimer, 1947/2006)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스스로를 주체로 자각하고 자연을 비롯한 타자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이성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였지만 이 지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간 이성은 계속 소외되고 ‘사유’라는 본래의 가치목적 상실한 채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다. 이 과정에서 여성 뿐 아니라 자연도 억압받고 착취당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사회 구조이자 관습의 체계로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고착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당연시하였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해 ‘사유’와 ‘이성’의 개념을 남성중심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적인 지배 논리를 강화하였다. 자연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소비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결합하여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의 하나가 산업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을 통한 개발도상국에의 진출이다.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주 비용 절감, 고용 창출, 지역 발전 등의 긍정적인 경제 용어로 포장되고는 한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공장 건설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의 가동으로 지역의 토양과 물이 오염되고, 공장 노동 인력들은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싼 값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개발’과 ‘근대화’를 내세운 다국적기업과 개발도상국 정부는 실상은 이익 창출을 위해 약자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이와 같은 억압과 착취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3년 5월에 일어난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 붕괴 사고에서도 피해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었고 그 중에서도 어린 소녀들이었다.⁸⁾

8) 장후영 (연출), EBS (제작) (2014). 「패스트 패션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하나뿐』

앞서 이야기한 실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제 가부장제는 더 이상 남성 개인 혹은 집단의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라는 큰 틀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를 이끌어가는 지배세력 또한 복잡하게 분화되었다.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내재한 국가와 기업에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남성과 여성이 있고, 이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피지배 세력 안에도 남성과 여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가 전 지구적인 범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다른 민족과 그들의 땅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진행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양상을 지적하면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여성과 자연의 해방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억압과 착취,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를 멈추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성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을 잃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아이들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는 데에도 남성보다 적극적이었다.

에코페미니즘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가 규정한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개념들을 비판한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진보와 개발이 실상은 그 실행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발전은 유럽의 다른 대륙에 대한 식민화로부터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포화상태인 그들의 땅으로부터 밖으로 눈을 돌려 그들의 것이 아닌 땅의 자원을 이용하고 소비함으로써 이윤 창출을 극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인 지구』[다큐멘터리]. 서울: EBS TV. 참조.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미개한 지역을 개발하고 지식과 문화를 제공한 것이라고 포장하였다. 식민지 원주민들은 미개하고 그 땅은 황폐했으므로 자신들이 활용하지 않았으면 쓸모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것들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것은 가부장제의 가치위계적 사고, 가치 이원론, 그리고 지배 논리를 바탕으로 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성이라는 개념을 도구화하여 타자를 정복하고 착취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진보와 개발로 포장하고 있으며 이를 타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를 통해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 안에서 가부장제의 지배 논리와 도구적 관점에서 자연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는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마리아 미즈와 반다나 시바(Maria Mies & Vandana Shiva, 1993/2000, p. 11)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가 여성 및 ‘이(異)민족과 그들의 땅을 식민화함으로써 생겨나 뿌리내리며 유지되고, 자연 역시 식민화하고 점차 파괴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는 군사국가인 토르메키아가 이러한 가부장제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단락 (11)에서 (15)까지를 보면 토르메키아는 무력을 이용해 바람 계곡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한 상태에서 협조와 복종을 요구한다. 바람 계곡을 침략한 크샤나는 토르메키아가 주변 국가들을 통합하여 왕도낙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크샤나가 주장하는 왕도낙원의 건설은 주변 국가들과의 합의나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앞세운 침략으로 이루어진다. 토르메키아는 강제로 주변 국가들을 통합해 지배하려고 하며 군사력과 기술을 이용해

쇠퇴한 인간의 문명을 다시 되돌리고자 한다. 토르메키아는 주변 국가들에게 왕도낙원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는다. 단락 (11)에서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의 추락현장에서 발견된 거신병의 알은 페지테를 침략해 빼앗아온 것이다. 거신병은 1000년 전 ‘불의 7일’이라 불리는 7일간 세계를 불태워버린 강력한 병기이다. 토르메키아가 페지테를 침략해 거신병의 알을 빼앗은 이유는 페지테가 강력한 기술과 힘을 가지는 것을 막고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토르메키아가 바람 계곡을 침략한 이유도 대형비행선과 함께 추락한 거신병의 알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토르메키아는 거신병의 힘을 이용해 산업문명을 부활시키고자 한다. 거신병을 이용해 부해를 태워버리고 산업문명 붕괴 이전의 기술을 통해 인간중심의 산업문명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부해는 산업문명이 붕괴한 후 황폐화되고 오염된 대지와 바다에 뿌리내린 균류의 숲으로 이곳의 포자식물들은 인간에게 유해한 독기를 내뿜는다. 부해에서 인간은 마스크가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마을도 포자가 날아와 균을 퍼뜨리거나 부해에 사는 벌레들이 공격하면 부해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부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단락 (14)에서 큰할머님은 토르메키아의 계획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크샤나는 인간이 기술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단락 (15)를 보면 크샤나는 바람 계곡에서 거신병의 알을 부화하려고 하고, 바람 계곡의 건십과 바지, 그리고 바람 계곡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까지 바람 계곡에서 쓸모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그리고 페지테의 공주인 라스텔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처럼 바람 계곡의 공주인 나우시카를 인질로 잡아가 바람 계곡이 토르메키아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토르메키아가 바람 계곡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상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식민지화하는 가부장제의 모습이다. 토르메키아가 지향하는 왕도낙원은 지배자로서 느끼는 왕도낙원에 지나지 않는다. 왕도낙원 건설에 대한 기획부터 진행 과정까지 모든 것은 토르메키아의 의지와 계획대로 그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주변 국가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진압하고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거신병의 존재는 독점적 권력에 대한 토르메키아의 야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거신병을 통해 부해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을 도구적 관점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르메키아는 부해가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들어 부해를 태워 없애려고만 한다. 토르메키아에게 자연은 지배하는 대상이자 이용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도구와 같다. 토르메키아의 목적은 기술을 통해 인간중심의 산업문명을 회복하고 그 힘을 토르메키아의 권력과 지배를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던 바람 계곡 사람들은 토르메키아의 침략으로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인다. 단락 (11)에서 바람 계곡을 침략한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은 마을을 파괴하고 무기를 든 토르메키아의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협한다. 게다가 단락 (12)에서 바람 계곡의 지도자이자 나우시카의 아버지인 질은 토르메키아 병사들에게 살해당한다. 침략으로 인해 마을을 파괴당하고 지도자를 잃은 바람 계곡 사람들은 단락 (15)에서 연이은 크샤나와 토르메키아군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바람 계곡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는 토르메키아가 바람 계곡의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토르메키아의 공주이자 변경과견군 사령관인 크샤나는 여성이지만 토르메키아의 가부장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토르메키아의 가부장적 억압과 착취는 모두 크샤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녀는 토르메키아의 침략이 상대국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주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토르메키아가 자신에게 부여한 변경과견군 사령관이라는 권위와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병사들과 무기의 힘을 통해 상대국을 짓밟고 사람들을 지배할 뿐이다. 크샤나는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부해와 벌레들을 거신병을 이용해 태워버리고 과거의 기술을 회복하여 붕괴한 산업문명을 되찾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해와 벌레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며 부해를 태워버리려는 이유가 공포와 증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단락 (20)에서 크샤나는 가부장제의 권위를 이용해 지배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음을 보인다. 가부장제의 권력을 휘두르는 크샤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오무들이 나타나자 그녀가 벌레들에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드러난다. 크샤나는 토르메키아의 권위와 무기가 통하지 않는 벌레들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크샤나를 통한 가부장제 비판은 그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우시카를 통해 보다 부각된다. 단락 (4)와 (5), (9), (20)을 보면 나우시카는 인간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해의 벌레나 동물과도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우시카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나 아닌 상대를 나와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우시카는 상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을 공격할 때에도 차분하게 상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크샤나로 대표되는 가부장제의 횡포가 부각되어 보여진다.

한편 가부장제 체제를 대변하는 토르메키아의 지배 방식은 그들이 타자화하는 주변 국가들의 저항을 야기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토르메키아의 침략을 받은 페지테가 토르메키아에 저항하는 방식을 통해 다시 한 번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다.

바람 계곡보다 먼저 토르메키아에게 침략당한 페지테는 토르메키아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 단락 (28)에서부터 (30)까지를 보면 페지테의 남성들은 페지테를 침략한 토르메키아에 복수하고 빼앗긴 거신병의 알을 되찾기 위해 부해의 벌레를 이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페지테를 실험대상으로 삼는다. 결국 벌레들의 공격을 받은 페지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이 과정에서 부해의 벌레들 뿐 아니라 페지테의 사람들도 희생된다. 페지테의 남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터전을 폐허로 만들면서까지 토르메키아에 복수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은 외면한다. 페지테의 남성들은 토르메키아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벌레들을 이용해 토르메키아에 복수하고 거신병의 알을 되찾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페지테는 토르메키아를 비난하며 저항하지만 동시에 토르메키아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 페지테의 남성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토르메키아의 가부장적 체제에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공격과 파괴를 통해 그들이 처한 지배-피지배의 상황을 전복하고 지배 우위에 서고자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상태를 타자화하고 지배하려는 모습은 그들이 저항하고자 하는 토르메키아의 가부장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우시카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해의 벌레를 두려워하거나 죽이려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숲으로 돌려보낼 줄 아는 소녀이다. 그녀는 또한 단락 (5)에서 유파가 데려온 키츠네리스가

두려움에 질려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 키츠네리스의 두려움을 달래고 친구로 만든다. 그런 나우시카도 단락 (12)에서 유일하게 폭력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 때문이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나우시카는 곧이어 단락 (17)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분노를 표출하며 휘두른 폭력이 자신에게 다시 한 번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나우시카는 거신병을 이용해 부해를 태워버리려 하는 크샤나와 페지테 남성들의 계획에 반대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크샤나와 페지테의 남성들은 나우시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해를 없애고 과거의 기술을 통해 산업문명을 되돌리려고 한다. 그들은 인간중심의 산업문명을 되돌리면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생존의 위협이나 환경의 황폐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황폐화된 현재의 환경이 산업문명의 붕괴로 인한 것이고, 산업문명의 붕괴는 기술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단락 (2)의 태피스트리는 산업문명의 번성과 붕괴의 과정을 보여주고 인간을 구원한 존재가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태피스트리를 보면 기술의 진보로 거신병이 만들어졌으며 거신병의 존재가 인간이 이룩한 산업문명을 붕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락 (11)에서 유파와 미토의 대화를 통해서도 거신병이 7일 동안 세계를 불태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파멸을 초래한 기술을 되살려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기술 자체에 대한 맹신과 기술의 통제에 대한 자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환경에 직면에 있으면서도 이를 다시 기술 개발로 극복하려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단락 (44)에서 크샤나는 거신병을 부화시켜 오무의

무리를 막으려 하지만 무리하게 부화시킨 거신병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부서져버린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버리면서 크샤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인간의 생존은 위협을 당한다. 그 순간 바람 계곡 사람들과 토르메키아군을 구해낸 것은 오로지 나우시카의 희생이었다.

단락 (41)에서부터 (45)까지에서 나우시카는 오무의 유충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다. 나우시카의 희생으로 인해 바람 계곡은 물론 토르메키아군까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나우시카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유충을 구하고 벌레의 무리를 멈추려 한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宮崎駿, 1996/2013, p. 443). 미야자키 하야오는 나우시카를 통해 한 소녀의 의지가 개인의 행위를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미야자키 하야오는 나우시카를 통해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달리 『원령공주』에서는 가부장제의 양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원령공주』에서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천황을 통해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야마토 조정은 500년 전 아시타카의 에미시 부족을 변방에 숨어들게 했던 위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불로불사를 위해 숲을 지키는 신의 목을 베려고 하는 욕심 많은 천황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에보시와 지코보우는 신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 타타라 마을의 지도자인 에보시가 신을 죽이려는 이유는 마을의 생계 수단인 제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숲의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나무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

해서 신을 죽이고 숲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반해 지코보우와 그의 수하들은 불로불사를 이루려는 천황의 명령을 받고 숲을 지키는 시시가미의 목을 베어가려 한다. 천황은 살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불로불사라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타자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살기 위해 숲의 신과 싸우는 타타라 마을의 사람들과 불로불사를 위해 신을 쫓고 있는 천황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이를 통해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

단락 (40)에서는 에보시와 지코보우의 대화를 통해 에보시가 숲과 인간의 전투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반면에 지코보우는 천황이 원하는 것은 시시가미의 목이라며 에보시를 재촉한다. 지코보우의 말을 통해 천황이나 천황을 위해 시시가미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은 시시가미의 목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피해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지코보우도 명령을 따를 뿐 에보시와 같이 인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욕심을 이루고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천황과 권력자들의 모습은 이익을 위해 상대를 식민화하고 착취하는 가부장적 체제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타라 마을은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마을이다. 타타라 마을은 에보시라는 여성이 마을의 지도자를 맡고 있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여성이 제철소에서 일을 한다. 단락 (20)에서 타타라 마을 여성들의 사연이 드러나고 단락 (26)을 통해 타타라 마을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것보다 일은 고되지만 스스로의 의지대로 생활할 수 있는 타타라 마을에서의 삶을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타타라 마을은 가부장제의 피해자들이 구성한 공동체로서 여성중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숲과 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도구적 관점을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마을의 지도자인 에보시의 성향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에보시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크샤나처럼 인간중심의 기술과 문명을 옹호하는 인물이다. 에보시는 크샤나처럼 다른 지역을 침략하고 정복하지는 않지만 숲의 신을 죽여 인간이 숲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나아가 타타라 마을 주변의 세력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제철소를 노리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을 만들어 여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에보시는 팔려나갈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마을로 데려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병환자들을 마을로 데려와 기거할 곳을 마련해주고 총을 만드는 일을 맡긴다. 약자를 위하고 배려하는 데에서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보살핌의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 인물로도 보인다. 다만 단락 (25)에서처럼 숲을 신이 아닌 인간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다. 인간중심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타자로서 배척당한 여성들과 나병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자연을 타자화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에보시는 인간을 위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숲과 싸우고 시시가미를 죽이려 한다. 그러나 인간을 이롭게 하려던 에보시의 행동은 결국 인간에게 해가 된다. 에보시가 총으로 쏜 멧돼지신 나고노카미는 결국 재앙신이라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만다. 그리고 아시타카는 에미시 부족의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부족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재앙신을 죽인 대가로 저주받고 만다. 에보시의 행동은 그녀 자신과 타타라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결국 다른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서 살펴본 단락 (40)에서 에보시가 시시가미를 죽이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천황의 지원

을 받아왔음이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시시가미의 죽음은 에보시 자신도 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에보시는 천황의 지원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총을 사용하는 병사들을 지원받은 덕분에 숲의 신들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 신을 물리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에보시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에보시는 아시타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락 (55)에서 시시가미의 목을 날려버린다. 그러나 단락 (56), (58), (60)을 보면 신을 죽이고 숲을 차지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했던 행동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는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이 인간에게 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아시타카의 에미시 부족은 변방에 살며 자연친화적으로 살아가는 부족이다. 무녀 히이의 존재는 에미시 부족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무녀라는 존재를 통해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앙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아시타카는 에미시 부족과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농민들을 습격하는 무사들의 모습이나 화폐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팔 수 없는 장터의 모습을 통해 이전에 비해 점차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발전하는 사회의 혼란을 보여준다. 시장을 통한 화폐 경제의 발달과 지역을 통일하려는 정복 전쟁의 발발 등은 인간이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타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수와 같은 재해와, 재해로부터 비롯되는 기아뿐 아니라 전쟁 등을 통해서도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코보우의 말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에미시 부족은 아마토 조정과의 전쟁에서 진 후 약 500년 동안을 동

북쪽 지방에 숨어 지내며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살아가는 부족이다. 에미시 부족은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간다. 이에 반해 아시타카가 목격한 세상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억압한다. 단락 (9)에서 화폐 경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은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보다 크게 확대하게 위해 도구적 관점을 견지(堅持)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병폐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왜곡하고,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능률적인 물질 생산의 극대화를 부로 인식하는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직접적인 생산과 이익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체계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자본주의가 토대로 하고 있는 이성 중심의 근대적 사고방식은 인간을 위계구조로 재편하고, 자연을 인간의 욕망에 무한히 봉사하는 물질적인 자원으로 인식한다(김임미, 2003, p.2).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를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온 아시타카의 눈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품에서 어떻게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대표적인 주제의식이기도 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에코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주체-주체 간 상호성의 개념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주체-주체의 상호성 실현

Beauvoir(1972/2011)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성별 억압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면서 여성이 타자로 대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한정되고 달라지지만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여자는 우발적인 존재이다. 여자는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비본질적(非本質的)인 것이다. 남자는 ‘주체(主體)’이다. 남자는 ‘절대(絶對)’이다, 그러나 여자는 ‘타자(他者)’이다(p. 15).

Beauvoir가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인식하고, 나와 다른 존재들을 의식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인간은 ‘나’를 ‘주체’로 인식하고 ‘나 아닌 것’을 ‘객체’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하나의 자아로 확립한다. 주체는 다른 존재들을 타자로 규정하는 과정이 없이는 자신을 주체이자 자아로 확립할 수 없다. 결국 실존주의 철학은 즉자와 대자,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초월과 내재라는 가치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실존주의 철학의 개념은 남성을 주체, 여성을 객체로 상정하였다. Beauvoir는 『제2의 성』을 통해 여성이 대상화된 타자, 제2의 성으로 규정된 과정을 설명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타자(autre)라는 범주는 의식 자체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것이다. …… 어떤 집단도 타자와 직접 대립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주체로서 파악하지 못한다. …… 한 나라의 토착민에게는 다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이방인’처럼 보인다.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자들에게 ‘타자’들이다. 흑인들은 미국 인종주의자들에게, 원주민들은 식민지 경영자들에게, 프롤레타리아들은 유산계급에게 각각 ‘타자’들이다. …… 주체는 대립함으로써 비로소 그

자신을 결정한다. 즉 자기를 본질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타자를 비본질적인 객체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을 확립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의식도 이 주체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 여행에 나선 한 토착민은 이웃 나라 토착민이 자기를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을 알고 놀란다. …… 좋은 나쁜 개인이나 단체나 그들 관계의 상호성(相互性)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왜 남녀 사이에는 이런 상호성이 인정되지 않는가. 어쩌서 그 중 한쪽만이 자신을 유일한 본질로서 긍정하고, 그 상호관계의 상대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대성을 부정하고, 상대를 단순한 타성으로 정해 버리는 것인가? 왜 여자들은 남성의 지배에 항의하지 않는가? 어떤 주체도 자발적으로 단번에 비본질적인 개체로 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기를 ‘타자’로 정하는 ‘타자’가 ‘주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주체’로서 정립하는 ‘주체’에 의하여 ‘타자’가 ‘타자’로서 정의되는 것이다. 그런데 타자가 주체로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타자가 상대의 그러한 관점에 순순히 복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의 이런 복종은 어디에서 왔는가?(pp. 15-17)

Beauvoir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상호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는 상호성이 인정되지 않는가에 의문을 품었다. Beauvoir는 이것이 여성이 ‘타자’로 규정되는 상황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여성이 ‘타자’로 규정되는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초월에 대한 의지를 발현한다면 ‘주체’로서의 자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배은경, 2012, pp. 291-292).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것이라는 Beauvoir의 설명에 따르면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서로를 타자화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주체로 인식하는 것만큼 상대도 자기 자신을 주체로 인식한다는 데에서 인식을 전환하면 나와 상대가 서로 대등한 주체로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상대를 대립적인 타자가 아닌 나와 동등한 주

체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타자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Mies(1993/2000)가 이야기한 주체-주체의 상호성이라는 개념이다. 주체-주체의 상호성이란 자아가 타자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주체, 타자를 객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또 다른 자아 존재, 즉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것이라면 타자를 또 다른 주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주체-주체의 상호성을 실현하고 타자성을 극복할 수 있다.

남성중심적인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가 여성과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여성과 자연은 타자화 되고 대상화 된다. 가부장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위계적 우열 관계로 규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한 위계적 지배 관계로 규정한다. 여성과 자연을 지배와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때때로 여성과 자연은 동일시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필연적으로 여성과 자연에 대한 타자화와 대상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에 의한 자연 억압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자연을 개발하고 개량한다는 명목 하에 파괴하고 착취한다. 이미 산업선진국의 자연도 개발과 개량을 통해 이익 생산의 도구로 전락시킨 상태면서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산업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산업선진국이 누리던 것과 같은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산업선진국과 다국적기업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시켜줄 뿐이다.

개발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지역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지역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하던 땅이 개발과 발전을 위해 국가나 기업의 소유가 된다. 지역적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로 인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삶의 터전이었던

지역에서 쫓겨나가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도록 강요당한다. 예를 들어 땅의 나무나 농작물을 베어낸 후에 원래 그 땅에서 자라던 나무나 농작물을 심지 않고 보다 빨리 자라고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나무나 농작물을 심거나 공장을 세우는 것 같은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은 본래의 생태 환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파괴된 채 끊임없이 소비된다. 또한 지역 사람들의 주요한 식재료로 이용되던 농작물은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하는 판매용 농작물로 대체되어 버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식재료를 자급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 보다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가 주도하는 개발과 자연에 대한 억압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빈곤을 야기하지만 여성들이 대개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Mies & Shiva, 1993/2000).

게다가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에서 말하는 자연보호란 자연이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는데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환경을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파괴된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개발과 개량의 논리가 먼저 적용되는 식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족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논리를 비판하고, 공존과 자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자연과 인간이 동등하게 관계맺음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 또한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각각의 주체로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체-주체의 상호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주제 의식이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는 물론이고, 이후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제작한 작품은 모두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연을 다루고 있고, 자연과 환경의 파괴에 대한 비판이나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예로 1986년에 개봉한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상단부는 숲으로, 하단부는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구성된 하늘을 떠다니는 성[라퓨타]을 통해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탐욕적인 삶보다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퓨타의 첨단기술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인 비행석을 손에 쥔 파즈와 시타는 비행석과 성의 하단부의 동시 파괴를 선택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키고자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그것이 결코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공존을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을 인간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야자키의 견해는 에코페미니즘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 토르메키아가 주변 국가에 취하는 태도는 나와 다른 상대를 타자화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토르메키아는 주변 국가를 통합하고자 하지만 이는 주변 국가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고자 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함이다. 주변 국가들과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토르메키아의 태도에서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나를 주체로 타자를 객체로 인식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드러나고, 스스로와 상대의 관계를 위계화

하고 분리하는 가부장제의 면모가 드러난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는 산업문명이 붕괴한지 1000년이 지난 뒤 황폐화된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는 이렇게 인간에 의해 황폐해진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 시작부터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부문별한 개발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등장하는 태피스트리는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최고 수준에 다다른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단락 (2)의 태피스트리는 부해와 벌레들에 의해 인간들이 고통 받고 있을 때 하늘에서 바람과 함께 파란 옷에 하얀 날개를 단 여신이 나타나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 (3)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소녀, 나우시카의 모습이 등장한다. 파란 옷을 입고, 하얀 클라이더에 올라탄 나우시카의 모습은 태피스트리의 여신을 연상시키며 나우시카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Napier, 2000/2005).

단락 (1)에서 유파가 부해로 변해가는 마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단락 (3)에서 나우시카는 부해로 들어간다. 포자식물들이 내뿜는 독으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어 마스크가 필수지만 나우시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해에 훑날리는 포자들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감탄한다. 나우시카는 부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해를 두려워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부해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그녀는 또한 어떤 존재나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감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를 쫓는 총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미 무엇인가를 느끼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실제로 총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대신 벌레에게 습격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나우시카는 급하게 달러가는 과정에서 등을 밝게 된 벌레에게 사과하는 여유까지

보인다.

이렇게 나우시카는 부해와 벌레조차 생명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하고자 하며, 그들과 공존하고 공생하고자 애쓰는 인물이다. 이것은 단락 (4)에서 거대한 오무와 마주한 나우시카가 오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성을 띤 오무를 진정시키고자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비록 인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벌레지만 소통을 통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극도로 분노한 오무와 소통이 불가능하자 나우시카는 설파탄과 충적을 이용하여 오무를 진정시키고 부해로 돌아가도록 유도한다. 설파탄은 오무가 의식을 잃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우시카는 그에 앞서 대화로 오무를 달래려고 했던 것이다. 나우시카가 오무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무와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우시카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는 것은 단락 (5)에서 유파에게 키즈네리스를 건네받았을 때에도 드러난다. 키즈네리스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데도 나우시카는 겁먹을 것 없다고 키즈네리스를 달랜다. 뿐만 아니라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제 손가락을 무는 키즈네리스를 가만히 바라본다. 나우시카가 공격하거나 화내지 않고 키즈네리스가 진정하기를 기다리자 키즈네리스도 나우시카의 뜻을 이해하고 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나우시카는 단락 (9)에서도 벌레와 소통한다. 우시아브라는 벌레를 발견한 바람 계곡 사람들은 우시아브를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부해의 벌레는 총으로 쏜다고 해도 쉽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극 받은 벌레가 공격성을 띄게 되면 부해에 있는 벌레의 무리를 불러들여 마을이 오히려 벌레들의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등장한 나우시카는 충적을 이용해 벌레를 진정시키고 부해

로 돌려보낸다. 메베를 타고 우시아브의 곁에서 함께 날며 우시아브가 부해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우시아브가 부해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던 나우시카는 멀리서 오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치 오무가 나우시카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를 통해 오무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던 나우시카의 행동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는 나우시카의 태도는 단락 (16)에서도 드러난다. 나우시카는 아버지와 바람 계곡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부해의 식물들을 연구한다. 아버지와 바람 계곡 사람들이 부해의 식물이 내뿜는 독성으로 인한 병으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부해의 식물을 연구해 병을 낮게 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나우시카는 이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위험하고 두려운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부해의 식물은 독성을 내뿜을 뿐 아니라 포자를 퍼뜨려 부해의 식물이 존재하는 장소까지 부해로 바꾸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파도 비밀의 방에 피어있는 부해의 식물들을 보고 크게 놀란다. 나우시카는 유파에게 지하 500m에 채취한 맑은 물과 흙으로 키운 부해의 식물은 독성을 내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알린다. 나우시카는 이 과정을 통해 부해 식물의 독성이 오염된 물과 흙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는 삶의 터전인 바람 계곡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나우시카가 부해의 식물들을 직접 키우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사람들의 병을 낮게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해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부해를 적대적인 공간이 아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나아가 부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나우시카의 스승인 유파도 부해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에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었지만 나우시카에게는 유파에게는 없는 능력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능력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예민한 감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와 소통하고 교감하기를 원하는 그녀의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나우시카의 자연에 대한 열린 마음과 태도는 그녀와 대립하는 존재인 크샤나를 통해 더 강조되고 부각된다. 단락 (13)에서 거신병을 이용해 부해를 태워버리고 인간의 세계를 되찾을 것이라고 천명했던 크샤나는 단락 (20)에서 그녀의 앞에 오무가 나타나자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떠난다. 이를 통해 부해와 벌레에 대한 그녀의 증오가 공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나우시카는 오무 앞에 당당하게 나서 오무를 공격할 뜻이 없음을 전한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오무의 황금빛 촉수를 통해 오무와 교감한다. 나우시카는 오무와의 교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무와의 교감을 통해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느낌을 받는다. 나우시카와 오무의 교감은 벌레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소통하려 했던 나우시카의 노력이 벌레들에게도 제대로 전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연과 인간의 소통과 교감은 그 누구도 시도하려 하지 않았을 뿐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단락 (22)에서 부해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은 나우시카는 자신의 어린시절에 대한 꿈을 꾸다. 어린 나우시카는 아버지와 어른들로부터 아주 작은 오무의 유충을 보호하려 하지만 들키고 만다. 나우시카의 아버지는 벌레와 인간은 같은 세계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며 나우시카로부터 벌레를 빼앗아가고, 나우시카는 벌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제발 죽이지 말라고 애원한다. 벌레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벌레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벌레를 죽임으로써 위협에서 벗어나

려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우시카는 어릴 때부터 벌레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벌레의 존재를 받아들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레라는 존재를 타자화하거나 객체화하지 않고 나와 동등한 존재인 주체로 인식한 것이다.

단락 (23)에서 나우시카는 부해의 바닥에 흐르는 맑은 물과 쌓여 있는 깨끗한 모래가 자신이 바람 계곡의 지하 우물에서 채취한 물과 모래와 같다는 것을 알아챈다. 부해의 바닥을 기둥처럼 지탱하고 있는 나무들이 걸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물을 통과시키고 있고, 완전하게 말라서 돌이 된 후에는 부서져 모래가 되는 것을 본 나우시카는 부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부해의 나무들은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땅의 독성을 흡수해 깨끗한 결정으로 만든 다음 죽어서 모래가 되는 방식으로 자정작용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부해에 벌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정작용을 하는 숲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우시카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존하려고 했던 덕분에 지난 1000년 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부해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우시카의 발견은 자연의 어떠한 생물체에게도 저마다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있고,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연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오염된 자연환경에서 고통 받아 왔지만 자연은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오염된 환경을 치유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늘 인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고작 부해를 태워버리거나 벌레를 죽이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연의 자정작용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 때마다 자연은 자정능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인간들의 공격을 견디며 자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왔다. 이는 단

락 (14)에서 큰할머니가 지난 1000년 동안 부해를 없애려는 계획이 수도 없이 실행되었지만 그 때마다 부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 벌레들이 인간을 공격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경고한 대목에서 확인된다. 결국 나우시카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해결 방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과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벨은 부해가 생긴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나우시카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나우시카의 이야기를 듣고도 인간들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부해의 자정작용 때문에 계속 부해의 독과 벌레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아스벨은 부해가 존재함으로 해서 오염된 땅이 깨끗해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간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해가 더 이상 넓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스벨은 자연의 자정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보다는 여전히 인간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단락 (24)와 (25)에서 바람 계곡의 사람들과 함께 바람 계곡으로 온 크샤나는 부해를 태워버리겠다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다. 바람 계곡 사람들에게 벌레에 의해 팔을 잃었음을 보여주며 인간을 위협하는 부해와 벌레를 태워버리고 인간의 세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며 부해와 벌레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다. 그리고 바람 계곡에 거신병이 있는 한 거신병을 차지하기 위한 다른 국가의 침략이 계속될 것이라며 거신병을 활용해 바람 계곡을 지키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크샤나의 이러한 태도는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결국 판단력까지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샤나는 나우시카와는 다르게 부해나 벌레의 존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공포와 증오만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공포와 증오를 그 대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소하려 한다. 크샤나의 이러한 태도는 타자를 객체화하고, 타자라는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받는 위화감을 타자를 지배하고 억압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드러낸 크샤나도 나우시카와 바람 계곡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안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된다. 단락 (36)과 (37)에서 크샤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크샤나에게 붙잡힌 바람 계곡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종용하는 크샤나에게 토르메키아의 사람들처럼 불을 사용하면 하루 만에 숲을 태울 수 있지만 물과 바람은 백년에 걸쳐 숲을 키운다고 말한다. 부해가 내뿜는 독성으로 인해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해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크샤나는 붙잡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신의 참모인 크로트와에게 나우시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공격을 미루고 나우시카를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목표로 삼았던 뜻을 쉽게 꺾을 수는 없지만 크샤나의 내면에 어느새 나우시카가 부해에서 무사히 돌아와 부해와 인간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크샤나에게서만 일어난 것은 아닌데, 페지테의 아스벨에게서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스벨은 부해를 태워 인간의 세계를 되찾겠다는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단락 (30)에서 페지테의 남성들에게 저항하면서까지 나우시카를 도우려한다. 그리고 단락 (32)에서 페지테의 여성들과 함께 감금된 나우시카가 바람 계곡을 구하러 갈 수 있게 탈출을 돕는다. 나우시카가 탈출하려는 순간 페지테의 브릭이 토르메키아의 콜벳트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나우시카는 페지테의 여성들을 남겨두고 자신만 탈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아스벨은 바람 계곡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우

시카 뿐이라며 자신들을 위해 그들을 구하러 가달라고 부탁한다.

단락 (41)과 (42)에서 나우시카는 자신이 다치면서까지 오무의 유충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도 오무의 유충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오무의 유충에게 인간들의 잘못을 사과한다. 그리고 단락 (45)에서 나우시카는 오무의 유충을 무리로 돌려보내고 분노한 오무의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돌격하는 오무의 무리 앞에 내려서는데 흥분한 오무의 무리는 자신들의 앞에 서있는 나우시카와 오무의 유충을 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단락 (46)에서 나우시카의 희생을 깨달은 오무의 무리는 돌격을 멈추고 분노를 가라앉힌다. 나우시카의 희생은 오무의 무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돌격을 멈추게 해 바람 계곡의 사람들과 토르메키아군의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오무의 무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나우시카를 생명의 힘으로 되살린다. 이는 끊임없이 벌레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벌레들을 구하려고 한 나우시카의 노력이 벌레들에게도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나우시카는 벌레들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벌레들과 교감하고자 했고, 그러자 벌레들도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녀와 교감하고자 한 것이다. 인간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벌레들은 사실 그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존재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앞선 단락 (12)에서 나우시카를 바라보던 오무의 모습은 이를 의미하는 복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작품에서 벌레들이 나우시카와 같은 존재를 기다려온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宮崎駿, 1996/2013, p. 446).

나우시카의 희생으로 오무 무리의 분노가 진정되자 바람 계곡에 멈췄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오무의 무리는 부해로 돌아가고, 오무의 무리가 나우시카를 되살리는 것을 본 크샤나도 군사들을 이끌고 토르메키아로 돌아간다. 나우시카와 바람 계곡 사람들은 다시금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고 폐지테의 사람들과 함께 바람 계곡에서 살아간다. 단락

(49)와 (50)에서 바람 계곡과 페지테의 사람들이 함께 바람의 힘으로 지하의 맑은 물을 끌어올려 나무와 농작물을 키우고, 부해에서 발견한 오무의 허물을 가져다 도구를 제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부해와 공존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람 계곡과 페지테의 아이들은 나우시카처럼 바람의 힘을 빌려 메베를 타는 연습을 하고 아스벨은 유파와 함께 부해의 탐험을 시작한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부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나우시카와 아스벨이 떨어졌던 부해의 바닥에 새싹이 자란 모습을 비춰주는 것으로 맺는다. 이 장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는 것이며 부해가 자정작용을 완료하면 다시금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숲이 생겨날 것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결말이다. 만일 부해를 불태워버렸다면 부해 바닥의 새싹은 싹을 틔워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작품을 통해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간문명의 미래를 비판하고 있다. 진보와 발전을 가장한 침략과 파괴가 계속된다면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와 같은 황폐화된 미래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공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공생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은 나우시카처럼 상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존재할 때 소통과 교감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는 무로마치 시대는 일본이 중세에서 근세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무로마치 시대의 일본은 이전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해나가게 된다. 화폐가 유통되면서 상업이나 금융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세력 확장을 위한 지역 간의 전투가 활발해지면서 혼란이 계속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일본에서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이 두려워해야할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된다(McCarthy, 1999/2004, pp. 214-215). 이전까지는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에 신이 깃들어있다는 의식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무를 벨 때나 사냥을 할 때나 신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제를 올린 것이 그러한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이러한 부에 대한 욕망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바꾸어놓게 된다(宮崎駿, 2008/2013, p. 71). 자연을 신성하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과 달리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과 신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사라진다. 자연을 인간의 편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은 인간이 자연을 도구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숲과 인간의 전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철학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의 세계관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철학적·과학적 사유의 바탕이 되었다. 반면에 예부터 일본에서는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만물정령신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이 존재하였고 만물정령신앙이 일본인들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원령공주』에서도 숲의 신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고, 숲을 지키는 신으로 숭배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는 난폭한 신들과 인간들과

의 전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하고자 한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공생이 단순하게 인간이 자연보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보다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자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宮崎駿, 2008/2013, pp. 28-29).

『원령공주』에서 아시타카의 에미시 부족이나 에보시가 이끄는 타타라 마을은 주류로부터 배제되거나 핍박을 피해 쫓겨온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이다. 에미시 부족은 야마토 조정으로부터 이민족이라고 배척받으며 변방인 동북쪽으로 쫓겨 온 부족이고, 타타라 마을의 여성들은 대부분이 남성들에 의해 팔려나온 여성들이고 나병 환자들 또한 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대상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미 누군가로부터 타자화된 존재들인 셈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의해 타자화되는 경험을 한 이들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에미시 부족은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아가지만 타타라 마을의 사람들은 자연을 타자화하여 자연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간다.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길을 택한 아시타카는 서쪽으로 떠나게 되고, 숲의 짐승들이 숲을 지키는 신으로서 태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시시가미의 숲에 다다른다. 그러나 숲의 신은 더 이상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숲의 신들과 타타라 마을의 인간들은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며 어느 한 쪽이 죽어야 끝이 날 만큼 서로에 대한 증오가 깊은 상태이다.

단락 (14)와 (15)에서 아시타카와 소몰이꾼들은 숲의 정령인 코다마를 만난다. 코다마를 본 마을 사람들은 무척 두려워하지만 아시타카는 코다마가 숲의 정령이고 코다마의 존재는 숲이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코다마에게 숲을 지나가겠다고 허

락을 구하고, 숲을 지나는 그들의 곁으로 많은 코다마들이 모여든다. 타타라 마을 사람들은 코다마가 자신들을 흘려 숲에 가두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아시타카는 코다마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냐며 그들의 뒤를 따른다.

시시가미의 숲은 타타라 마을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타타라 마을의 제철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숲의 나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숲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신은 증오의 대상이다. 그들은 그들의 곁에 있는 숲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그들에게 숲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다. 반면에 아시타카는 처음 시시가미의 숲에 발을 들여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숲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숲의 정령인 코다마에 대해 알고 있고, 그들은 사람이 먼저 해를 가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아시타카는 숲을 지나는 동안 코다마들과 장난을 치듯 그들을 친근하게 대한다. 코다마에게 숲을 지나가겠다고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앞에서 달리는 코다마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냐며 말을 건다. 아시타카 일행을 둘러싼 코다마들 중에는 부상자를 업고 있는 아시타카를 따라하듯 서로를 등에 업고 뒤따르는 녀석들도 있다. 아시타카와 코다마의 소통은 코다마에 대한 아시타카의 이해와 존중으로부터 비롯된다.

반면에 에보시는 숲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숲을 파괴하고 신을 죽이려고 한다. 인간이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에보시의 생각이다. 타타라 마을은 철을 팔아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구하기 때문에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은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따라서 철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곤궁해질 것이다. 또한 타타라 마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여성과 병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다.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팔려나온 여성들과 살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 사람들로 부터 차별받던 나병환자들은 철을 만들거나 총을 만드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지금의 삶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보시가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에보시의 존재를 통해 선악의 모호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마을을 지키려는 에보시나 숲을 지키려는 신이나 그들은 각자의 행동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 상대에게는 악의로 다가오고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키운다. 미야자키하야오는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선악의 관계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에보시는 자연을 파괴하는 나쁜 사람이지만 동시에 타타라 마을의 여성들과 병자들을 구한 좋은 사람이기도 하다.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복잡함인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헝클어진 부분은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공격하는 신의 존재를 통해 자애로운 자연이 아닌 흉포한 자연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이다(宮崎駿, 2008/2013, pp. 31-39).

『원령공주』에 등장하는 자연은 자애로운 모성의 자연이 아니다. 사실 자연에게 자애로운 모성을 요구한 것은 인간이다. 가부장제는 여성과 자연을 연결하면서 때때로 여성과 자연의 속성을 동일시하였다. 자연에게서 자애로운 모성을 찾는 것은 이러한 동일시의 일환이기도 하다. 남성과 문화, 여성과 자연을 연결하면서 자연을 모성적 대지, 수동적이고 종 번식에 충실한 동물의 모습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과 자연을 남성을 위해 끊임없이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

재로 규정하는데 이용하였다. 더 나아가 가부장제에서는 이렇게 규정
한 여성과 자연의 재생산의 기능을 의미 있는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
고, 생산을 위한 부차적인 조건이 되게 하였다. Plumwood는 이 과정
을 가부장제가 재생산의 영역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Tong, 1989/1995, p. 111; 또한 Plumwood, 1993/2000, pp. 112-114).

자애로운 모성을 지닌 여성과 자연이라는 개념은 여성과 자연을 구
성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원령공주』의 자연은 흉포한 자연의 모
습으로 한없이 인간을 품어주거나 더 이상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내
어주지 않는다. 숲의 신들은 숲을 지키기 위해 인간과의 전쟁도 불사
하고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는다. 물론 시시가미와 숲과 신들
에게는 자애로운 모성도 있다. 모로와 산의 관계는 어머니와 딸의 관
계로 모로는 숲을 파괴하는 인간을 증오하지만 인간인 산을 자신의 딸
로서 키워낸다. 모로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산은 자신을 들개로 여기며
숲을 파괴하고 신을 죽이는 인간을 증오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
결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그녀는 숲을 파괴하는 에보시를 죽
일 수 있다면 자신이 죽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삶
의 터전인 숲과 가족들을 사랑한다. 모로 역시 인간인 부모에게 버려
져 자신에게 키워진 산을 측은해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나우시카와는 다르게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
는 산의 태도는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연을 타자화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아
시타카를 만나 변화하게 되는데, 아시타카와의 만남은 자신을 타자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인간과의 만남이기도 하다. 산은
아시타카와의 만남 이후에도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신과
숲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역할도 깨닫는다고 할 수 있다. 산과 아시타카가 재앙신이 된 시시가미의 목을 신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산은 그토록 증오하던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녀가 아시타카와 함께 자연과 인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원령공주』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의 복잡성과 함께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자의성을 이야기한다. 자연의 양면성은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어떠한 가치판단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 행동하는데 반해 자연은 자연의 편의라는 것이 없다. 자연의 생명은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자연재해 자체도 다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인간은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개발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보호하고자 한다. 숲을 남기지 않으면 인간의 형편이 나빠지기 때문에 숲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재단한다. 인간에게 좋은 것만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에게 좋은 것만 자연으로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인간도 짐승도 나무도 물도, 모두 동등하게 살아갈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나무에도 물에도 살아갈 장소를 주자는 것이 미야자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宮崎駿, 2008/2013, pp. 39-40).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양자 모두 여성과 자연이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과 자연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락 (16)과 (17)은 시시가미가 생명의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단락 (31)과 (33)에서 시시가미가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신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단락 (36)에서 모로는 시시가미가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는 신이라고 일갈하며 시시가미는 짐승이든 인간이든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를 통해 자연이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자연으로 인해 거두어질 수도 있다는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모로는 인간의 총에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자신이 시시가미를 만난다면 시시가미가 자신의 생명도 거두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모로의 말을 통해 자연 앞에서 생명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시시가미, 즉 자연에게 있어서는 생명에 우월이란 없다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원령공주』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타자화하고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타자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자연과 인간 각자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단락 (42)에서부터 (44)까지를 보면 아시타카는 숲과 인간의 전쟁을 막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모로는 이미 인간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한쪽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그것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숲의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베어 내지 않았다면 숲과 인간이 서로를 증오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숲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상 숲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내가 상대를 타자로 대하기 시작하면 상대도 나를 타자로 대한다. 나와 상대가 서로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체와

객체(타자)의 대결은 필연적인 것이다.

결국 숲과 인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신들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총 등의 철폐 앞에서는 신으로서의 신성성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들이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숲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신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 단락 (49)에서 옷코토누시는 인간의 총에 맞고, 살고자 하는 마음에 시시가미를 찾아 숲의 못으로 간다.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휩싸인 옷코토누시는 시시가미를 찾아가면서 인간을 멸하고 멧돼지를 되살려달라고 기원한다. 결국 못에 도착하기도 전에 재앙신이 되어버리고 모로가 예상한 대로 시시가미는 옷코토누시와 모로의 생명을 거두어간다.

시시가미를 죽이기 위해 옷코토누시를 쫓아온 지코보우의 부하들은 시시가미를 찾아 죽인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옷코토누시의 곁에 있던 산이 옷코토누시에게 휩쓸려 함께 재앙신이 되어 가고 옷코토누시에게서 흘러나오는 저주로 주변이 황폐화 되어 가는데도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시시가미를 죽여 그 목을 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단락 (55)에서 에보시는 아시타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데이다라봇치로 변하는 시시가미의 목을 총으로 쏘아 떨어뜨린다. 목을 잃은 데이다라봇치는 재앙신으로 변해 그의 피가 저주가 되어 흐른다. 그리고 그의 저주가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죽어간다. 숲에서 생명을 잃은 코다마들이 떨어지고, 데이다라봇치의 피에 닿은 숲과 사람들도 죽어간다. 단락 (58)과 (60)에 이르면 데이다라봇치는 자신의 목을 되찾기 위해 숲을 헤매며 폭주한다. 목을 찾으려는 데이다라봇치의 저주는 숲 전체에 퍼져 숲의 모든 생명을 빼앗고 숲을 벗어나 타타라 마을에까지 흘러든다. 타타라 마을 사람들은 아시타카의 말에 따라 마을 밖 강으로 피하지만 타타라 마을과 제철소는 불에 타 사라진다.

인간을 이롭게 하려던 에보시의 결단이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단락 (61)에서 산과 아시타카는 데이다라봇치에게 목을 돌려준다. 목을 되찾은 데이다라봇치가 쓰러지면서 바람이 불어 타타라 마을을 태우던 불이 멈추고 숲의 만물이 소생한다. 폐허가 된 숲과 마을에 싹이 트고 숲은 다시 푸르게 돌아온다. 숲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타타라 마을의 나병환자들마저 치유된 것을 보고, 타타라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시시가미가 싹을 틔우는 생명의 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숲은 되살아났지만 신은 죽고 타타라 마을 사람들도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결국 숲과 인간의 전쟁은 그 누구도 승리하지 않은 전쟁으로 끝난 것이다. 에보시와 마을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겪고 나서야 자연을 대하던 자신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의미에서 단락 (64)에서 아시타카가 산은 숲에서, 자신은 타타라 마을에서 함께 살자고 말한 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보시 역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마을 사람들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더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원령공주』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을 필요로 한다. 자연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만큼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도구적 관점에서 이용하려고 할 때 자연과 인간 간의 생존의 균형이 무너진다.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면 인간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원령공주』를 통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데 있어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생

명체로 대하는 평등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는 에코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개념과도 일치하며 자연을 대등한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고는 주체-주체의 상호성이나 관계 맺는 자아의 실현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서 어떻게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을 타자화하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주체-주체의 상호성이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이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동체가 작품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동체 의식과 공간의 형성이 어떻게 상호적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공동체 의식이 공간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성

에코페미니즘은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는 대안으로 여성중심적인 지역 공동체를 제시한다. 에코페미니즘의 생태윤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타자와의 관계에 여성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급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문제이다. 이는 타자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여성 고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여성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보살핌이라는 여성적 원리를 타자와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에코페미니즘이 타자와의 관계에 도입하고자 하는 여성적인 관점은 자연과

타자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이를 여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남성적인 관점이 자연과 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자를 객체화하고 위계질서 내에서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적인 관점은 보살핌의 여성적 원리를 통해 자연이나 인간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모성적 자아를 내재하고 있다(Warren, 1997; 박혜영, 2011에서 재인용). 또한 에코페미니즘은 자급적인 관점을 내재하고 있는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여성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급적인 관점의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상품소비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여성의 상품화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박혜영, 2011).

이상화(2011) 역시 에코페미니즘이 여성주의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에코페미니즘은 서구 근대의 원자적 개인주의와 기계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부분과 전체, 인간과 자연 간의 대립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전체론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존재자들 간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전체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다양한 존재자들이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인간 공동체 뿐 아니라 생태 공동체의 형태로 공존한다. 자연과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에코페미니즘적 공동체는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 성별, 계급, 인종,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이 개별성을 존중하고 관용과 공감을 바탕으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맺은 관계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다. 또한 에코페미니즘은 경쟁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약자를 돌보는 행위와 그 경험, 보살핌을 통한 자연과 타자에 대한 이해, 관계지향성 등을 강조한다.

자급은 본래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던 방식의 일부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는 자급을 시장경제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생산과 소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자급적 경제활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빈곤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에서는 산업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이는 개발도상국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가 내세우는 개발은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될 뿐 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탈하고 생활방식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와 기업은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을 억압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역 공동체는 생존을 보장받고 지켜져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지역의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개발하고 파괴하기보다 함께 살아가기를 택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개발 논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이었던 자연환경을 지키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생활하고자 저항하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인도의 칩코운동은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억압과 착취에 저항한 여러 사례들 중의 하나다. 자급은 여성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본래 삶을 지속해오던 고유한 방식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정당한 생산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에코페미니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간의 삶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다국적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국가와 지역을 초월한다.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일본계 기업과

미국계 기업이 합병하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은 네덜란드에 설립한다. 각 기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네덜란드계 다국적 기업의 소속이 되고, 상대국가로 업무상 출장을 가는 등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과 자본은 이동을 경험하게 되고,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소는 거기서 교차하면서 장소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는 사회공간적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장소는 경계를 규정하는 규칙들을 구성하는 권력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경계들은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계들은 경험의 위치나 현장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공간에 속하는지, 누가 제외되어도 괜찮은지 등을 정해준다 (McDowell, 1999/2010, pp. 25-27). 장소는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권력관계에 영향을 받고 그 공간에 머무르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의식과 관계가 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에코페미니즘은 공간과 공동체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간으로서의 자연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공동체에 기반이 되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자연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 에코페미니즘은 이 과정에서 인간이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서 벗어나 인간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미야자키의 하야오의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과 공동체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에코페미니즘에서 지향하는 대안적 공동체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에서 공간과 공동체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페미니즘적인 면모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바람 계곡은 자연친화적이고 자급적인 공동체이다. 바람 계곡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계곡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살아간다. 단락 (6)에서 나우시카는 메베를 타고, 유파는 토리우마(トリウマ)⁹⁾를 타고 바람 계곡으로 향한다. 바람 계곡은 바다에 인접한 계곡으로 계곡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람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계곡 사이에 날개의 역할을 하는 나무판자들을 매달아둔 것을 볼 수 있다. 바람 계곡에서는 바람의 힘으로 풍차를 돌려 지하의 맑은 물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밭을 경작하고 숲을 가꾸고 있다. 멈추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과 마르지 않고 흐르는 맑은 물은 바람 계곡이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다. 그래서 유파가 무즈에게 모두의 안부를 물었을 때 무즈는 물과 바람이 마르지 않아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유파를 맞이하는 바람 계곡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바람 계곡의 모습은 유파가 여행 중에 지나온 황폐화된 다른 지역의 모습이나 부해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다. 산업문명이 붕괴된 이후 황폐화된 땅에서 바람 계곡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가고, 그들에게 운택한 삶을 제공하는 바람의 존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주어진 자연환경에 감사하는 바람 계곡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바람 계곡을 보다 풍요로운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과 그에 따른 공동체의 노력은 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간은 다시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단락 (3)에서 나우시카는 부해를 탐험하다 오무의 껍질을 발견하고,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하는데 이러한 나우시카의 모습을 통해 바람 계곡 사람들이 직접 재료를 구해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생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문명의 붕괴

9) 지상에서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새

와 함께 기술을 잃고 생활에 필요한 것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자급적인 생활방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바람 계곡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 활용하며 살아간다. 바람 계곡의 이러한 생활방식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공동체의 모습으로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람 계곡 사람들은 가족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여행을 떠났던 유파가 바람 계곡으로 돌아오자 바람 계곡의 사람들 모두가 유파를 반긴다. 오랜만에 유파와 만난 바람 계곡 사람들은 그와 안부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나우시카를 통해 아이를 유파에게 보이며 아이의 대부가 되어 주기를 부탁한다. 유파는 이에 흔쾌히 응하며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아이를 축복한다. 이렇듯 바람 계곡의 사람들은 모두가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준다. 황폐화된 환경에서 부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웃고 떠들며 행복해한다. 바람 계곡의 공주인 나우시카는 바람 계곡 사람들을 이끌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우시카는 부해를 탐험하며 바람 계곡에 필요한 재료를 구해오고 메베를 타고 유파보다 먼저 바람 계곡에 돌아와서는 풍차 위에 올라가 풍차의 날개를 고치고 있다. 나우시카는 공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군림하기보다는 바람 계곡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에 참여하고 바람 계곡의 사람들 또한 나우시카를 믿고 따른다.

이러한 바람 계곡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가 토르메키아의 군사들과 페지테의 남성들이다. 토르메키아는 국가로서의 물리적 공간은 등장하지 않지만 토르메키아의 군사들은 대형비행선을 타고 이동하며 다른 국가를 침범한다. 토르메키아군이라는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공동체가 머무르는 공간인 대형비행선은 나우시카의 메베와 비교된다. 메베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데 반해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은 이동수단인 동시에 공격수단이다.

바람 계곡에 추락한 대형비행선은 페지테를 침략하고 거신병의 알을 빼앗아 토르메키아로 돌아가던 중으로 페지테의 공주인 라스텔을 인질로 잡고 있기까지 했다. 페지테를 침범하고 거신병의 알을 강탈한 대형비행선이 추락하게 된 계기는 부해에 내려가 벌레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은 침략과 폭력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등장할 때마다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죽이기를 반복한다. 바람 계곡을 침범했을 때에도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 안에서 총을 든 군사들과 탱크들이 쏟아져 나온다. 무력으로 바람 계곡을 점령한 크샤나는 페지테로 돌아가면서 나우시카와 바람 계곡 사람들을 인질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 외에도 물자와 식량 등 쓸모가 있어 보이거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람 계곡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식량 등을 강탈해간다는 사실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단락 (18)에서 페지테로 돌아가던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들은 서로 밀집한 채 비행하는데 바지를 타고 인질로 끌려가던 골은 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치 습격을 겁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페지테의 건십이 대형비행선들을 공격한다. 토르메키아군은 누군가가 토르메키아에 저항하고 복수하기 위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부장적 공간으로 형상화된 토르메키아의 대형비행선은 폭력과 파괴만을 일삼다가 결국 자신의 공간마저 폭력에 의해 파괴된다.

반면 나우시카의 메베는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엔진을 통해 이륙하기도 하지만 이륙한 후에는 바람을 타고 비행한다. 비행 당시의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메베를 조종하는 나우시카가

이러한 바람의 흐름을 얼마나 잘 읽고 따르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메베를 조종하기 위해서 나우시카는 바람의 흐름에 감각을 집중해야만 한다. 유파는 나우시카가 메베를 조종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훌륭하게 바람을 다루게 되었다고 놀라워한다. 나우시카는 토르메키아군과는 다르게 자연을 임의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자신을 내맡긴다. 자연의 흐름에 집중하고 그것에 따르면서 자연의 하나가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나우시카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페지테의 남성들은 토르메키아에 빼앗긴 거신병의 알을 되찾고 토르메키아국에게 복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해의 벌레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들은 벌레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페지테를 시험 대상으로 삼는다. 그 결과 페지테는 폐허가 되고, 페지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을 잃고 브릭을 타고 떠돌게 된다. 단락 (29)에서 아스벨은 폐허가 된 페지테의 상태를 보고,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걱정하는데 페지테의 남성들은 거신병을 되찾아 부해를 불태워버리면 된다면 안심시킨다. 이러한 페지테 남성들의 태도는 진보나 개발을 위한 파괴는 발전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우시카는 이 사실을 알고 놀라고 슬퍼하는데 페지테의 남성들은 토르메키아로부터 거신병의 알을 되찾는 것은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거신병의 알을 되찾아 부해를 불태우고 인간의 세계를 되돌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토르메키아가 내세우는 거신병의 이용 목적과 같다. 페지테의 남성들은 토르메키아의 침범을 받고 거신병의 알을 빼앗기면서 대부분의 페지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며 이제 토르메키아에 저항할 방법은 벌레들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희생당

하는 바람 계곡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이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삶의 터전까지 파괴하였지만 그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자 거주공간인 브릭이 토르메키아의 콜벳트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이전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도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락 (32)에서 페지테의 여성들은 페지테의 남성들에 의해 감금당한 나우시카를 풀어주면서 페지테 남성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녀들은 페지테 남성들의 결정이나 행동을 막지는 못했지만 힘을 합쳐 나우시카가 벌레들의 돌진을 막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페지테라는 단일한 공동체 안에서도 남성들과 여성들이 서로 다른 의견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페지테의 사람들이 되돌아갈 곳을 잃었다는 점이나 다시 토르메키아의 공격을 받아 사람들이 죽었다는 점에서 페지테 남성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페지테 여성들은 페지테 남성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막아서지는 못했지만 나우시카를 도움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페지테 여성들과 아스벨의 도움으로 풀려난 나우시카는 바람 계곡으로 돌아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오무 무리의 돌진을 막고 바람 계곡 사람들 뿐 아니라 페지테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 모든 것은 페지테 여성들이 그들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인데 이는 여성들이 힘을 모으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페지테의 여성들은 나우시카를 도움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과 남성들이 생각이 달랐음에도 페지테 남성들은 페지테 여성들의 생각을 그들의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페지테라는 공동체가 남성중심의 가부장

적 공동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바람 계곡과는 다르게 자연에 친화적이거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페지테의 태도는 토르메키아의 태도와 다르지 않고, 공동체로서의 페지테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토르메키아의 모습도 유추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이 공동체가 구성하는 공간의 환경이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공동체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한 바람 계곡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반면에 토르메키아와 페지테는 타자를 배척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활공간마저 잃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 공동체도 변화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나우시카를 만나기 전의 아스벨은 토르메키아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페지테의 남성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우시카를 만나 부해의 원리에 대해 알게 되고 나우시카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스벨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다. 단락 (30)에서 아스벨은 페지테의 남성들이 나우시카가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나우시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나우시카를 돕기 위해 페지테의 남성들을 위협한다. 이에 실패하자 페지테의 여성들과 함께 감금된 나우시카가 탈출할 수 있게 돕는다. 단락 (33)에서 나우시카는 페지테의 여성들을 남겨두고 탈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아스벨은 바람 계곡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우시카 뿐이라며 페지테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 계곡을 구하러 가달라고 말한다.

크샤나 역시 나우시카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를 드러낸다. 단락 (36)과 (37)에서 크샤나는 나우시카를 기다리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어 한다. 크사냐는 나우시카나 바람 계곡 사람들과 계속 대립하면서 부해를 불태워 없애겠다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사냐는 부해를 태워버리고 인간의 세계를 되찾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우시카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개인으로부터 나아가 공동체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우시카의 영향을 받은 아스벨은 페지테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아스벨과 페지테의 여성들은 나우시카의 탈출을 도왔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오무의 무리를 멈추게 하고 바람 계곡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나우시카의 영향을 받은 크사냐가 바람 계곡에 대한 공격 명령을 미뤘기 때문에 바람 계곡 사람들은 토르메키아군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나우시카가 사람들과 공동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나우시카가 오무 무리의 돌진을 멈춰 사람들을 구한 것만큼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단락(49)에서 갈 곳을 잃은 페지테의 사람들은 바람 계곡 사람들과 바람 계곡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은 페지테 사람들은 바람 계곡 사람들과 힘을 합쳐 지하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풍차를 함께 만드는 등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시작한다. 가부장적인 태도로 자연과 대립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나우시카를 통해 부해를 대하는 태도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마저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시하고자 하는 숲이라는 공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 숲은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부해와 바람 계곡의 숲으로 나뉜다. 부해는 인

간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흉포한 자연을 의미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숲이라 할지라도 부해는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고,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부해는 오염된 땅과 물을 정화하고, 부해의 벌레들은 자정작용을 하는 부해를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만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부해를 두려워하지만 나우시카와 바람 계곡의 사람들은 부해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도 하고 부해와 공존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비록 부해의 포자와 벌레들이 두렵지만 부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람 계곡이 아닌 다른 지역 곳곳이 부해에 잠식당하는 공포에 시달리며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을 때 바람 계곡이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연 공동체든 인간 공동체든 자신들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우시카와 부해 벌레들의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존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인간과 양립 불가능한 공동체로 그려진 부해를 통해 오히려 이질적인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람 계곡의 숲은 바람 계곡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선택하고 함께 살아가며 일구어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원령공주』의 타타라 마을은 여성중심적인 공동체이다. 타타라 마을의 지도자는 여성이고, 여성들도 마을의 공적 활동에 참여한다. 타타라 마을에서 여성들은 철을 생산하고, 남성들은 소를 몰아 철을 마을 밖에 내다 판다. 여성들이 참여하는 철 생산은 마을을 책임지는 생계수단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타타라 마을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을 하고 철을 팔아 사온 쌀 등을 동등하게 나누는 평등한 생산 공동체이다(박경선, 2000). 이렇게 타타라 마을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우받는다.

타타라 마을의 여성들은 제철소에서 일을 하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단락 (20)을 보면 마을 여성들 중 대부분은 타타라 마을에 오기 전 팔려나온 여성으로 에보시에 의해 구해져 타타라 마을에 정착하게 된 여성들이다. 스스로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고 남성들에게 지배받고 종속되었던 여성들이 타타라 마을에 와서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락 (26)에서 마을의 여성들은 제철소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아시타카의 물음에 마을 밖에서의 생활보다는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마을의 지도자인 에보시는 마을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충을 개발한다. 에보시는 자신도 여성으로서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있고, 직접 충을 다루는 등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초월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녀는 타타라 마을의 여성들도 자신처럼 여성으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여성에 대한 금기나 한계가 결국 진정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해 규정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아시타카가 마을의 제철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통해 제철소가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즉 여성들에게 제철소는 일터이자 휴식의 장소인 것이다. 한 조의 여성들이 풀무질을 하는 동안 다른 조의 여성들은 제철소의 한 쪽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옷매무새에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락 (26)에서 아시카타가 풀무질하는 것을 도울 때 남성인 아시타카의 힘이 여성들이 힘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녀들의 최선을 다해 닷새 동안 쉬지 않고 풀무질을 계속해 철을 생산해낸다. 일을 할 때 함께 노동요를 부르며 단결하고 서로의 힘을 북돋으며 맑은 바를 해내는 것이다.

또한 마을의 여성들은 에보시의 지도에 따라 공동체로서의 강한 결속력을 보여준다. 단락 (41)에서 에보시는 마을의 남성들을 이끌고 시시가미를 죽이러가면서 마을 여성들에게 그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마을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결국 단락 (46)과 (47)에서 아사노의 사무라이들이 타타라 마을에 에보시와 남성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쳐들어온다. 이 때 마을의 여성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각자 총을 들고 나선다. 마을에 남은 여성들과 나병 환자들은 사무라이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마을을 지켜낸다. 덕분에 마을은 쉽게 함락되지 않고 서로가 지칠 때까지 전투가 계속된다. 사무라이들은 여성들만 남아있는 마을이라고 알고 공격했겠지만 전혀 예상외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바람 계곡은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자급적인 관점의 자연친화적인 공동체이다. 반면에 『원령공주』의 타타라 마을은 여성해방적인 공동체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과 대립하고 있다. 『원령공주』에서는 에보시가 시시가미의 목을 베고 시시가미의 저주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에보시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연 파괴의 궁극적인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산과 아시타카의 노력으로 시시가미가 목을 되찾게 되고 그로 인해 숲이 되살아나면서 삶은 계속된다. 이를 계기로 타타라 마을이라는 공동체도 자연을 인식하는 사고의 변화를 갖게 된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시시가미가 죽음의 신인 동시에 생명의 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비록 시시가미가 인간을 위해 한 행위는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시시가미가 숲을 되살려준 셈이었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원령공주』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삶은 계속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 타타라 마을이라는 공동체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되돌아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타타라 마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타타라 마을이 제철소를 운영하는 것은 타타라 마을의 입지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철을 제련하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는데 나무가 필요하고, 불에 달군 철을 식히고 다듬는데 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철업의 특성상 마을 주변에 산과 숲과 강이 근접한 타타라 마을의 위치는 제철소를 운영하는데 적합하고, 제철소를 운영하는 이상 주변의 산과 숲이 파괴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사철이 생산되고 사철을 철로 가공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진 타타라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자연을 경외하고 숭배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의해 나무가 베어지고 땅이 파헤쳐진 숲의 신들이 인간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괴되고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들은 자신들의 신성성을 잃고 신으로서의 힘도 잃어간다. 타타라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자연이라는 공간과 관계 맺음에 있어 공존이 아닌 지배를 선택하면서 숲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한편 아시타카의 에미시 부족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바람 계곡과 같이 자급적인 관점의 자연친화적인 공동체로 보인다. 에미시 부족은 일본을 지배하는 야마토 정권에 의해 변방으로 내쫓긴 소수민족의 부족이다. 그들은 야마토 정권의 지배를 피해 동북쪽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 아시타카의 에미시 부족은 지코보우나 에보시의 의

해 동북쪽에 존재한다는 전설의 부족으로 이야기되어진다. 에미시 부족에는 무녀가 존재하고, 무녀의 존재를 통해 자연과 신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앙신이 된 멧돼지신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마을의 무녀는 위험을 감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재앙신이 아시타카의 화살에 맞고 쓰러졌을 때 재앙신의 분노를 달래려 한다. 이러한 에미시 부족의 생활방식으로 통해 에미시 부족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구성하는 자연과 그 자연에 존재하는 신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에미시 부족이 살아가는 공간은 아시타카가 여정 중에 목격하는 어느 지역의 마을보다 풍요롭고 평화롭다. 권력의 주류로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전쟁과 기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원령공주』에서 에미시 부족이 다뤄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러한 에미시 부족의 모습을 통해 아시타카의 자연친화적인 관점이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공간과 에미시 부족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시타카를 통해 타타라 마을이라는 공동체와 신의 숲이라는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가 사회적 상호 관계를 맺으며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공간과 공동체에 변화의 가능성이 태동한다.

『원령공주』에서 타타라 마을과 대립하는 신의 숲이라는 공간은 인간과 대립하는 자연이자 공포한 자연이다. 인간이 나무를 베고 숲을 파괴하자 숲의 신들은 인간에게 분노하고 인간을 증오한다. 거대한 동물의 모습을 한 숲의 신들은 인간을 공격하고 신들의 공격을 받은 인간들 역시 신들을 두려워하고 증오한다. 결국 서로를 죽고 죽이는 잔인한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나 타타라 마을 사람들에게 숲이 공포와 증

오의 공간인 것과 다르게 아시타카에게 숲은 자애와 풍요의 공간이다. 단락 (14)에서 아시타카는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숲의 코다마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숲에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숲이 나를 해할 리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숲을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타타라 마을이라는 공동체와 에미시 부족이라는 공동체가 숲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왔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숲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에 따라 숲은 공포스러운 죽음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훼손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과정에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품의 결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를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급적인 관점의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표현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작품에 등장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자연이나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과 공존하면서 상대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그려내었다. 곧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 입각한 자연친화적이고 상호 평등한 공동체를 제시한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분석하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와 에코페미니즘의 연관성을 고찰한 것이다.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성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여성에게 행해지는 성적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성적 불평등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페미니즘 관점으로 문학과 대중매체를 분석하는 작업은 이미 사회 전반에 가부장제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비틀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부장제는 이미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져 남성 중심적인 관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길들여짐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면화되었다. 사회가 이미 남성중심적인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 남성중심적인 관점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강화된다.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의 현상을 여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이유는 남성중심적인 관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알리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페미니즘의 역사적·이론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성과 여성이 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가부장제, 계급, 성[sex], 타자성[otherness] 등을 여성 억압의 근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여성이 억압받는 만큼이나 자연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가부장제는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면서 남성의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가부장제는 위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규정해왔다.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성, 문명과 자연이라는 서로 대비되는 존재들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위계적인 구도로 설정하고 한 쪽에 다른 한 쪽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이성은 감성에 비해, 문명은 자연에 비해 우월하다는 논리가 성립되었으며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도구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주체-주체의 상호성 실현과 자급적 관점의 공동체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체-주체의 상호성은 가부장제가 여성과 자연을 타자화하면서 여성과 자연이 억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주체와 또 다른 주체의 관계로 인식하는 전환의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자는 것이다. 자급적 관점의 공동체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세계체제에 대항하는 대안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해 온 지역의 자급적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으로 그의 작품은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꾸준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해왔고, 대다수의 작품에서 소녀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를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소거하고 작품의 서사적 흐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을 서사적 흐름에 따라 단락별로 구성하였고 에코페미니즘에서 파생되는 세계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를 통해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였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에서 가부장제는 위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도구적 관점의 인간중심적 사고로 타자를 억압하고 착취한다. 가부장제는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 토르메키아와 페지테는 거신병을 이용해 부해를 태우고 인간의 문명을 되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토르메키아는 페지테를 침략하고 페지테는 토르메키아에 복수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페지테로 인해 벌레들이 바람 계곡을 공격하면서 바람 계곡 사람들과 토르메키아군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다. 『원령공주』에서 야마토 정권의 천황은 시시가미의 목을 얻어 불로불사를 이루려고 한다. 천황은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숲을 파괴하고 신을 죽이려고 하면서 개인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는다. 타타라 마을의 에보시는 타타라 마을을 양성평등한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면서 마을에서 여성과 환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러나 에보시는 도구적 관점에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자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신을 죽이는데 앞장선다. 그리고 에보시가 시시가미의 목을 베면서 숲이 죽어가고 타타라 마을 사람들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반면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의 산과 아시타카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인 이들은 상대가 자

연이든 인간이든 상대를 타자화하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자연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이를 통해 파괴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연과 인간을 구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하는 이유를 깨닫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나우시카는 부해와 벌레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려고 한다. 나우시카는 부해와 벌레들을 동등한 생명체로 존중하면서 부해와 벌레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한다. 결국 자정작용을 하는 부해의 역할을 깨닫고 벌레들과의 소통과 교감, 그리고 자기희생을 통해 사람들을 구한다. 그리고 그녀 자신 역시 벌레들과의 교감을 통해 되살아난다. 『원령공주』의 산과 아시타카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산은 숲에서 들개에 의해 키워져 숲의 신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오히려 숲을 파괴하는 인간을 증오한다. 아시타카 역시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아시타카는 숲과 인간이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에보시에 의해 시시가미가 죽고 그로 인해 숲과 타타라 마을에 죽음이 엄습한다. 아시타카는 인간에게 분노하는 산을 설득해 함께 시시가미의 목을 되찾아 돌려주고 숲과 타타라 마을 사람들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작품을 통해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공동체의 의식에 따라 공동체가 생활하는 공간의 환경이 달라지고 공간의 환경은 다시 그곳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는 바람 계곡이 자급적 관점의 자연친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로 그려지고 있다. 『원령공주』에서는 타타라 마을이 여성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로 그려지고 있다. 바람 계곡의 사람들은 자급적이고 자연친화

적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 계곡의 자연으로부터 오는 풍요와 평화를 누린다. 타타라 마을의 사람들은 양성이 평등하다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가부장제의 성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도구적 관점에서 자연을 타자화하여 착취하고 파괴한 결과 삶의 터전인 타타라 마을이 파괴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를 통해 가부장제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면서 자연이든 인간이든 상대를 타자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力說)하였다. 주인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주체-주체의 상호성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을 통해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였으며 공동체 의식이 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간의 변화가 다시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상호적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분석의 과정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이상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냄으로써 미야자키 하야오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중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와 『원령공주』 두 작품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집약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작품에 대한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가 지속된다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성관’과 ‘자연관’을 보다 심도 있게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宮崎駿 (감독) (1984).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 [영화/DVD]. 일본: 스타시오즈브리.
- 宮崎駿 (감독) (1997). 『원령공주[もののけ姫]』 [영화/DVD]. 일본: 스타시오즈브리.

1. 국내문헌

- 강영숙 (연출), EBS (제작) (2014). 「인간과 애니메이션 1부 애니메이션, 세상을 사로잡다」. 『다큐프라임』 [다큐멘터리]. 서울: EBS TV.
- 고정갑희 (2012). 「성 계급과 급진적 여성해방론」. 한정숙 (편).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pp. 367-403). 과주: 한길사.
- 김강희 (2008).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원령공주(もののけ姫)」와 고료(御霊)신앙」.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석 (2007).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 〈미래소년 코난〉·〈바람계곡의 나우시카〉·〈천공의 성 라퓨타〉·〈이웃집 토토로〉·〈원령공주〉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 제34집, 45-83. 한국언어문화학회.
- 김도연 (2014).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나타난 비행의 상징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 (2012).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애니메이션 속에 나타난 여

- 성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임미 (2003). 「에코페미니즘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태 (2010).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2집, 349-37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박경선 (2000).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자연관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하 (2003). 『아니메 미학 에세이』. 서울: 바다출판사.
- 박인하 (2006). 『꿈과 환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 월트 디즈니 vs 인간 가치를 꿈꾸게 하는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서울: 숨비소리.
- 박혜란 (2010).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애니메이션의 주제의식 고찰」.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2011). 「생태 파괴 시대의 페미니즘」.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편).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pp. 347-370). 광주: 문학동네.
- 배은경 (2012).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실존주의적 성찰」. 한정숙 (편).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pp. 275-312). 광주: 한길사.
- 송명희 (2012). 『페미니즘 비평』. 서울: 한국문화사.
- 신문희 (2007). 「미야자키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소녀’(少女) 이미지 - 전통적 ‘소녀’(少女) 이미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윤희 (2009).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화 (2011). 「여성과 환경에 대한 여성주의 지식생산에 있어 서구

- 에코페미니즘의 적용가능성」. 한국여성철학, 제16권, 109-140.
한국여성철학회.
- 이수진 (2009).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내러티브 분석 - 캐릭터의 성별 차이에 따른 서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후영 (연출), EBS (제작) (2014). 「패스트 패션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하나뿐인 지구』 [다큐멘터리]. 서울: EBS TV.
- 진혜정 (2008).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세계」. 애니메이션연구, Vol.4 (No.1), 89-114. 한국애니메이션학회.
- 진은경 (2006).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비교문학, 제39집, 143-161. 한국비교문학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 국외문헌

- 宮崎駿 (1996). 『出發点: 1979~1996』. 小金井: スタジオジブリ.(미야자키 하야오 (2013). 『출발점: 1979~1996』 (황의웅 역). 서울: 대원씨아이.)
- 宮崎駿 (2008). 『折り返し点: 1997~2008』. 東京: 岩波書店.(미야자키 하야오 (2013). 『반환점: 1997~2008』 (황의웅 역). 서울: 대원씨아이.)
- Beauvoir, Simone de (1972). *The Second Sex*. London: Penguin

- Books.(시몬 드 보부아르 (2011). 『제2의 성』 (이희영 역). 서울: 동서문화사.)
- d'Eaubonne, Françoise (1974). *Le Temps de L'Ecoféminisme. Le Féminisme ou la Mort* (pp. 215-252). Paris: Pierre Horay.(d'Eaubonne, Françoise (1994). *The Time for Ecofeminism* (Hottell, Ruth., Trans.). in Merchant, Carolyn (Ed.). *Ecology* (pp. 174-175). New Jersey: Humanities Press.)
- Engels, Friedrich (1972).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프리드리히 엥겔스 (1995).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서울: 아침.)
- Firestone, Shulamith (1970). *The Dialectic of Sex*. New York: Bantam Books.(슐라미스 파이어스톤 (1983). 『성의 변증법』 (김예숙 역). 서울: 풀빛.)
- Horkheimer, Max (1947). *Eclipse of Rea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막스 호르크하이머 (2006). 『도구적 이성 비판』 (박구용 역). 서울: 문예출판사.)
- Horkheimer, Max & Adorno, Theodor W. (1994).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Social Studies Association.(막스 호르크하이머 & 테오도르 W. 아도르노 (2002).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McCarthy, Helen (1999). *Hayao Miyazaki : Master of Japanese Animation*. California: Stone Bridge Press.(헬렌 매카시 (2004).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조성기 역). 서울: 인디북.)

- McDowell, Linda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린다 맥도웰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파주: 한울.)
- Merchant, Carolyn (1992). *Radical Ecology: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 New York: Routledge.(캐롤린 머천트 (2001). 『래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역). 서울: 이후.)
- Mies, Maria & Shiva, Vandana (1993). *Ecofeminism*. London: Zed Books.(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2000).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역). 창작과 비평사.)
- Mill, John Stuart (1869). The Subjection of Women. in Wollheim, Richard (Ed.) (1983). *Three Essays: On Liberty,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ubjection of Wom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존 스튜어트 밀 (2006). 『여성의 종속』 (서병훈 역). 서울: 책세상.)
- Napier, Susan Jolliffe (2000). *Anime from Akira to Princess Mononoke: Experiencing Contemporary Japanese Animation*. New York : Palgrave.(수잔 J. 네피어 (2005). 『아니메』 (임경희·김진용 역). 서울: 루비박스.)
- Plumwood, Val (1986). Ecofeminism: An Overview and Discussion of Positions and Argument.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4, 120-138.
- Plumwood, Val (1991). Nature, Self, and Gender: Feminism, Environmental Philosophy, and the Critique of Rationalism.

- in Zimmerman, Michael E. (Ed.) (1998). *Environmental Philosophy* (pp. 291-314). New Jersey: Prentice-Hall.
- Plumwood, Val (1993). Feminism and Ecofeminism. *Feminism and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발 플럼우드 (2000).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이소영 외 (편).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강규한 역) (pp. 109-142). 서울: 한신문화사.)
- Tong, Rosemarie Putnam (1989).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Colorado: Westview Press.(로즈마리 통 (1995).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이소영 역). 서울: 한신문화사.)
- Tong, Rosemarie Putnam (1998).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Second Edition)*. Colorado: Westview Press.(로즈마리 통 (2000).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개정증보판) (이소영 역). 서울: 한신문화사.)
- Warren, Karen J. (December 1988). Toward an Ecofeminist Ethics. *Studies in the Humanities*, 15, 140-156.
- Warren, Karen J. (1990).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in Zimmerman, Michael E. (Ed.) (1998). *Environmental Philosophy* (pp. 325-344). New Jersey: Prentice-Hall.
- Warren, Karen J. (1997).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Wollstonecraft, Mary (1792).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in Tomaselli, Sylvana (Ed.) (1999).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메리 울스턴크래프트 (2008). 『여성 인권의 옹호』 (손영미 역). 파주: 한길사.

Walby, Sylvia (1990). *Theorizing Patriarchy*. Oxford: Blackwell Publishers.(실비아 월비 (1996). 『가부장제 이론』 (유희정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ABSTRACT

Miyazaki Hayao's Works from Eco-feminist Point of View

- Focusing on *Nausicaä of the Valley of the Wind*
and *Mononoke Hime* -

Byun, Youngbaik

Department of Women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Miyazaki Hayao's works from eco-feminist point of view. Most of Miyazaki Hayao's works have female protagonists, especially girl protagonists, and have clear messages on the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beings. Noting on this aspe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his works and eco-feminism.

Both *Nausicaä of the Valley of the Wind* and *Mononoke Hime* a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and have women as protagonists and antagonists. These characteristics triggered this study to analyze the two works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feminism and examine how the works portray women-nature connections and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beings.

Eco-feminism asserts that patriarchy has oppressed and exploited nature and women and that nature and women are connected as the objects of oppression. It also criticizes that patriarchy has conceptualized men and women based on hierarchical and dualistic thoughts and that it dictates nature and women as inferior beings to men. Further, it stresses the roles of women-centered small communities which oppose oppressive and exploitative capitalist-patriarchy. The ways of living in capitalist-patriarchal systems around the world have exploited and destroyed nature while those in small local communities accept and understand nature as their bases for living. Likewise, the consciousness of community that constitutes space affects the formation of space, and the changes in space affects life in communities in return. The ultimate goal of eco-feminism is to liberate nature and women from the oppression of capitalist-patriarchal systems around the world and to enable nature and women to escape from the relationship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nd co-exist.

In *Nausicaä of the Valley of the Wind* and *Mononoke Hime*, Miyazaki Hayao shows how logics of domination of patriarchy and human-centered thinking have destroyed nature and threatened human life. He criticizes patriarchy and instrumental reason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attitude that embraces, understands and

communicates with nature as it is, not making it ‘the other.’ He shows the scenes in which nature and human beings realize subject–subject reciprocity through his protagonists, and tries to talk about the possibilities and importance of human–nature co–existence. He also presents the idea of communities which he thinks to be ideal and emphasizes the roles of communities, showing the effects of community consciousness has on the formation of space and their reciprocal connections.

This study analyzed Miyazaki Hayao’s works from eco–feminist point of view and confirmed that eco–feminist pursuits are ideally presented in Miyazaki Hayao’s works. The researcher was able to draw a conclusion that Miyazaki Hayao promotes a turn in ways of thinking through the genre of animation films while examining Miyazaki Hayao’s works from eco–feminist perspectives, not from the traditional patriarchal points of view which are deeply rooted in society.